

KEPID Web Magazine

2026, Vol.08

우리들의 이야기

Senior Message

Senior Message

초여름의 길목에서, 바른 원칙과 신뢰를 담아 한산가족에게 전하는 첫 편지



이상호 상임감사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7일 우리 한전산업개발에
첫 발을 내딛은 **상임감사 이상호**입니다.

첫 출근에는 꽃샘추위가 질투를 부렸지만
어느덧 한 낮에 햇살은 여름을 맞을 준비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전산업은 37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해오며
전력산업 현장을 묵묵히 지킨 주인공입니다.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 성과이기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은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상임감사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편법, 불법의 경계가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 앞에서
유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과 유통성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법과 규정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직원 여러분과
이렇게 지면으로 첫 소통을 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곧 우리 한산가족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감사 **이 상 호**

ZOOM IN

하동사업처장 한상진의 하루 따라잡기

현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많은 업무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을까요? 이번 코너에서는 하동사업처장의 일상을 따라가며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회사생활 속 철학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08:30 '안전처장' 한상진 하동사업처장의 활기찬 아침



"갑시다!" 활기찬 외침과 함께 하동사업처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약 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하동사업처는 연료·환경 설비의 운전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처장님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09:30 '안전 조치는 과하게' 정비실 TBM 현장 순시



제일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정비실의 작업 전 안전회의(TBM) 현장. 현장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안전 조치는 과하게 합시다. TBM은 오전, 오후 작업 시작 전에 꼭 두 번 실시해 주세요." 아무리 정비와 운전 업무를 잘해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회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10:00 '소통은 양방향' 처실장 회의



사무실로 돌아온 한상진 처장님은 주간 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논의합니다. 리더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장 전문가인 동료와 후배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습니다. "내가 처장으로서 결정을 내리지만, 세세한 것들은 현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없습니다. 서로 어우러져 가장 좋은 합리점을 찾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10:40 '현장에서 피어나는 신뢰' 연료·탈황설비 제어실 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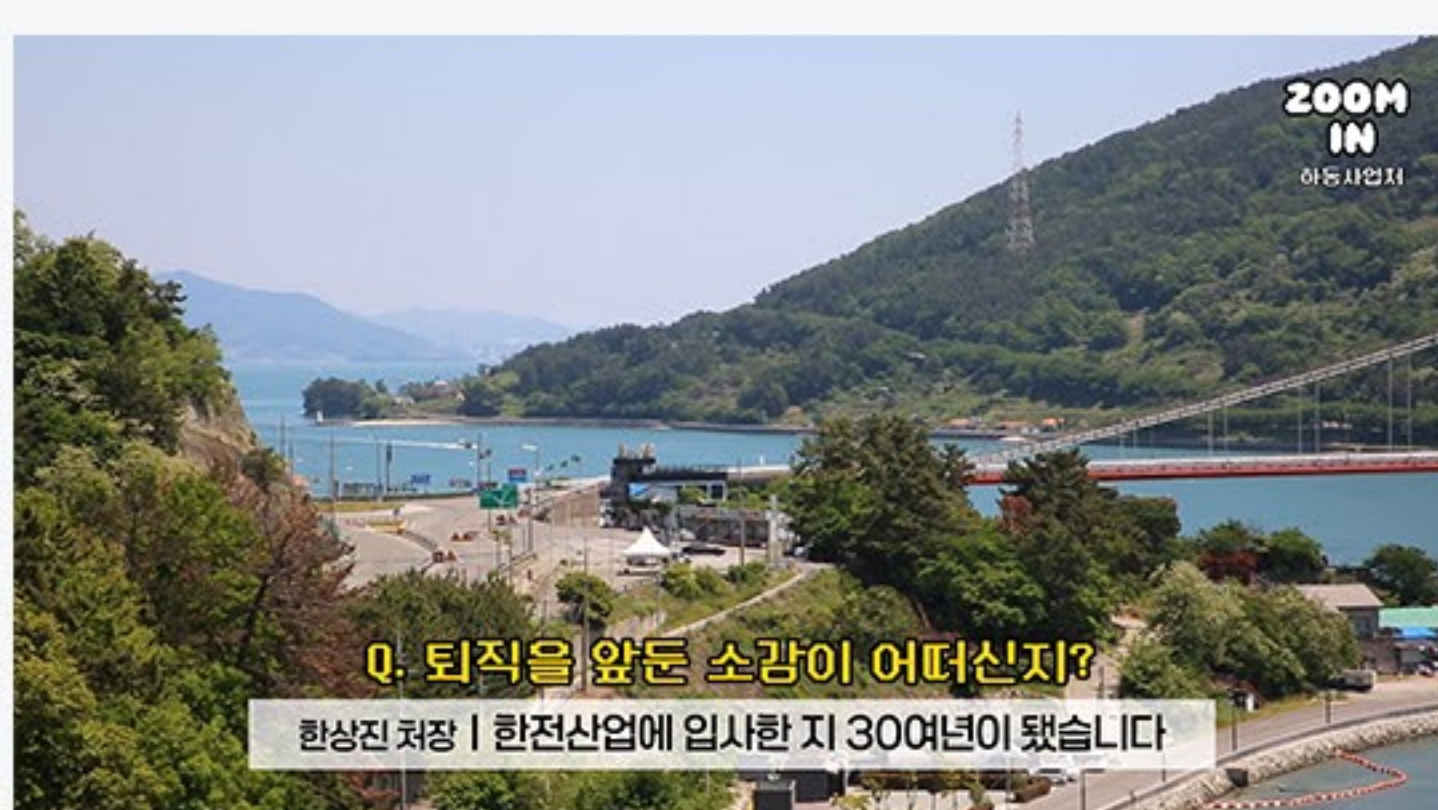


다시 현장으로! 제어실 현장을 이곳저곳 다니며 살피는 한 처장님. 현장에서 만난 탈황운영 차장은 처장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한상진 처장님은 현장 운전원 출신이시라 설비에 대한 애착이 정말 남다르십니다. 무엇보다 현장 직원들을 늘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11:00 '유쾌함 가득' 점심시간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벗어난 점심시간, 처장님과 직원들 사이에 유쾌한 대화가 오갑니다. 봄 날씨에 제철을 맞은 썩이 등복 들어간 도다리 썩국 한 그릇에 사무실에서의 긴장이 싹 풀리네요.



식후 커피 한 잔 들고 산책 삼아 노랑 전망대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의 마무리는 직원들과 함께 탁 트인 노랑 전망대를 걷는 시간. 한전산업개발과 함께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처장님은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바람을 전합니다. "국가 전력 산업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어 보람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남해 바다처럼 푸르게 빛나는,
하동사업처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생생한
현장을
한번바**

▶ 유튜브 '한번바'
지금 보신 콘텐츠를
보다 생생하게!
유튜브 한번바에서
영상으로 만나요!

한산인 쏫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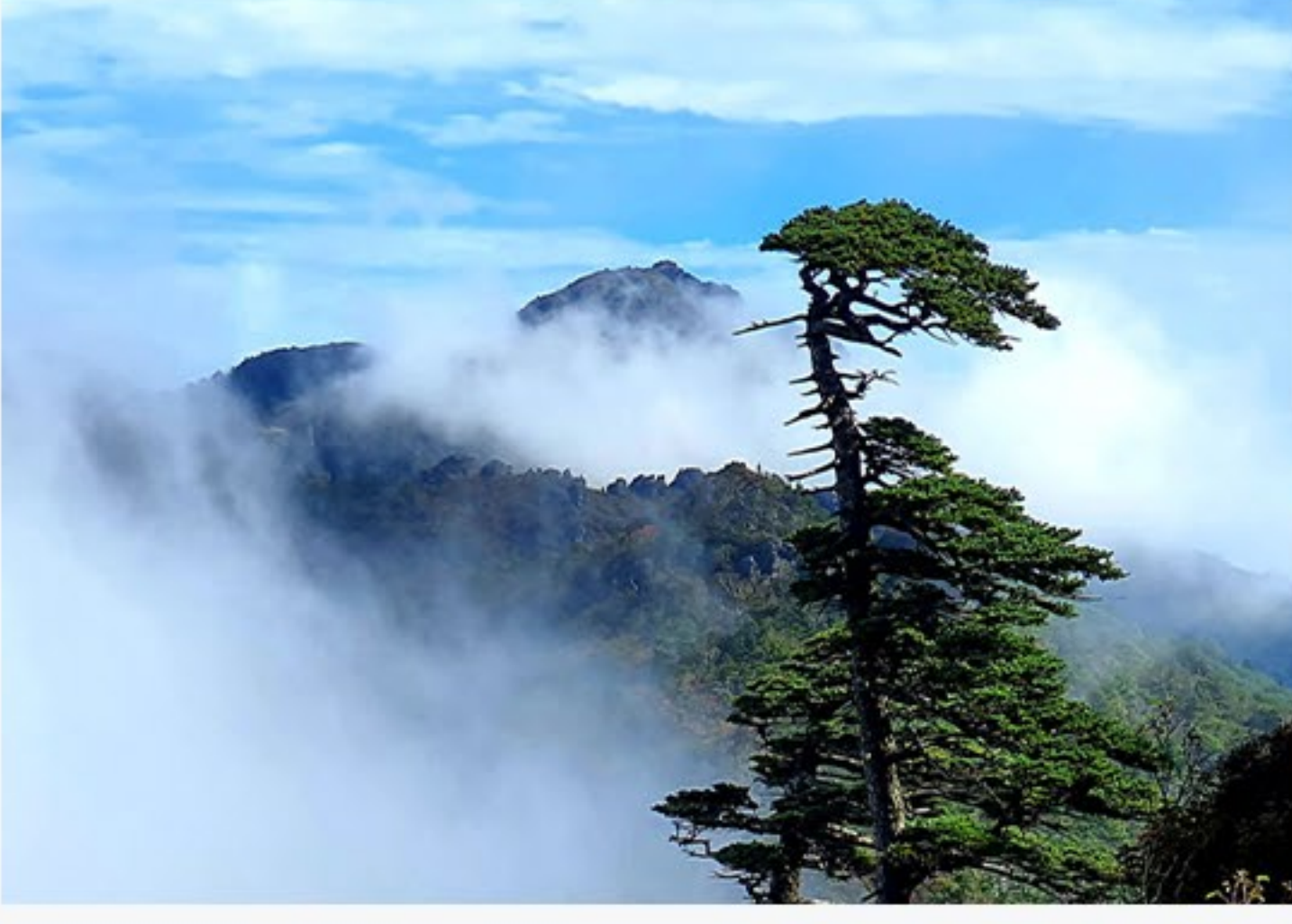
500번의 발걸음으로 완성한 도전과 끈기의 기록

누군가에게 산은 잠시 쉬어가는 자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리산 천왕봉을 무려 500회 오른 한전산업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오르막과 계절을 지나며 쌓아온 도전의 시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원동력을 함께 들어봅니다.



지리산 천왕봉 500회 등반의 시작

대학 새내기 시절, 산악회 선배들의 권유로 아무것도 모른 채 3박 4일 일정의 '화대종주'를 시작하며 지리산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힘들어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하산 후 하루만 지나면 다시 생각나는 것이 지리산의 매력이었습니다. 한두 번 천왕봉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운해와 산 그리메를 보며 완전히 매료되었고, 산에서 만난 분들이 등반 횟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년퇴직 전까지 500회 달성'이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성 기간과 과정

1983년 첫 산행 이후 매년 10회 이상 산을 찾았으나, 군 제대 후 약 10년 동안 산행을 쉬면서 체중 증가와 체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1998년 하동사업처 교대근무를 계기로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집 근처 광양 가야산(497m)과 백운산(1222m)을 꾸준히 오르며 기초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쉬는 날마다 지리산 천왕봉을 찾은 결과,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2024년 12월 27일(금요일) 마침내 5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연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향하며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고생했던 '첫 지리산 산행'입니다. 또한 한겨울 칠선계곡 산행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마폭포 지점에서 비박을 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립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만큼 무모했지만 강렬한 기억입니다. 무엇보다 큰 자산은 인연입니다. 83세의 나이로 700회 이상 오르신 분, 2,000회 이상 오르신 분 등 지리산을 사랑하는 이들과 대피소에서 나누던 산 이야기는 늘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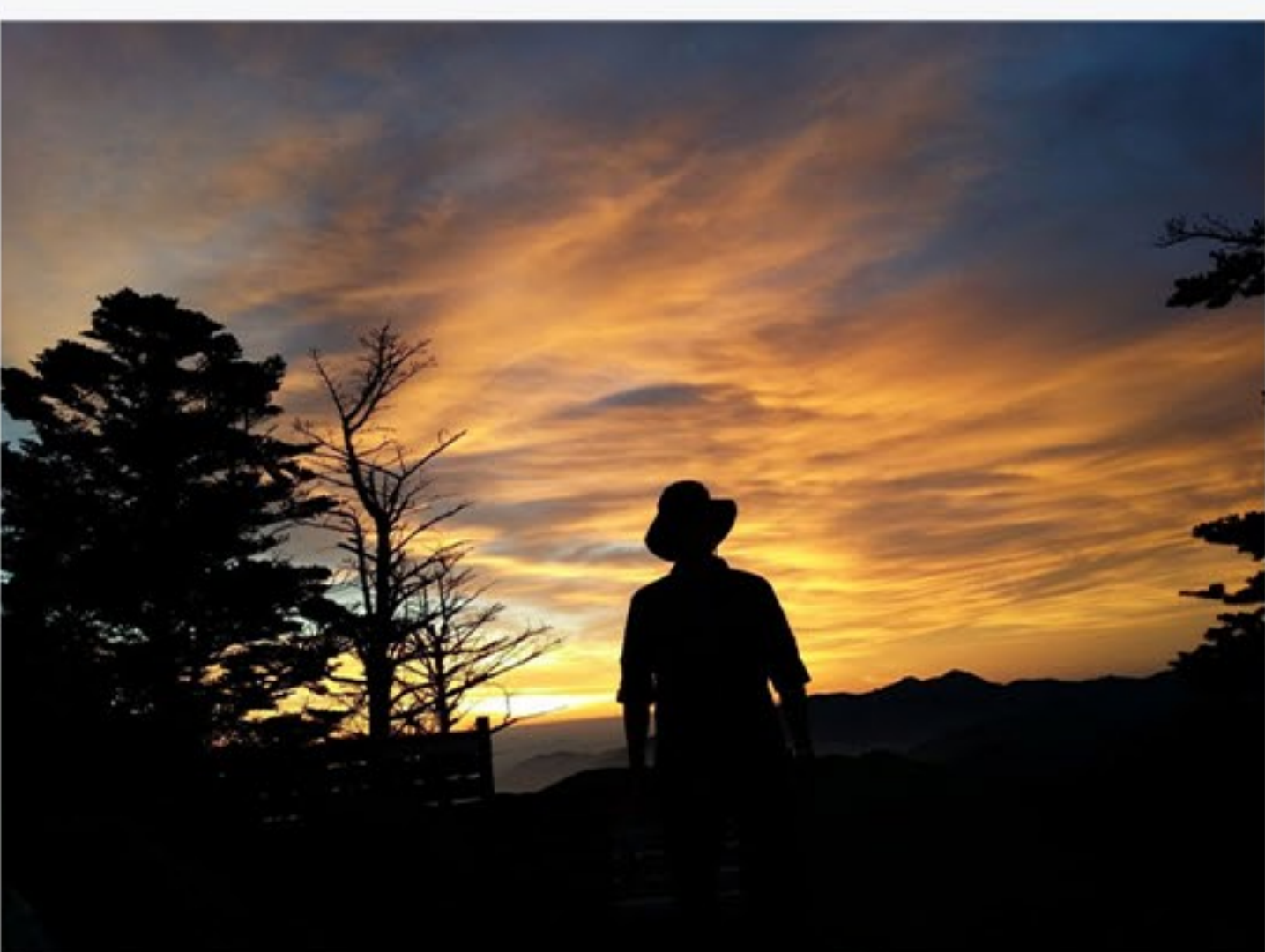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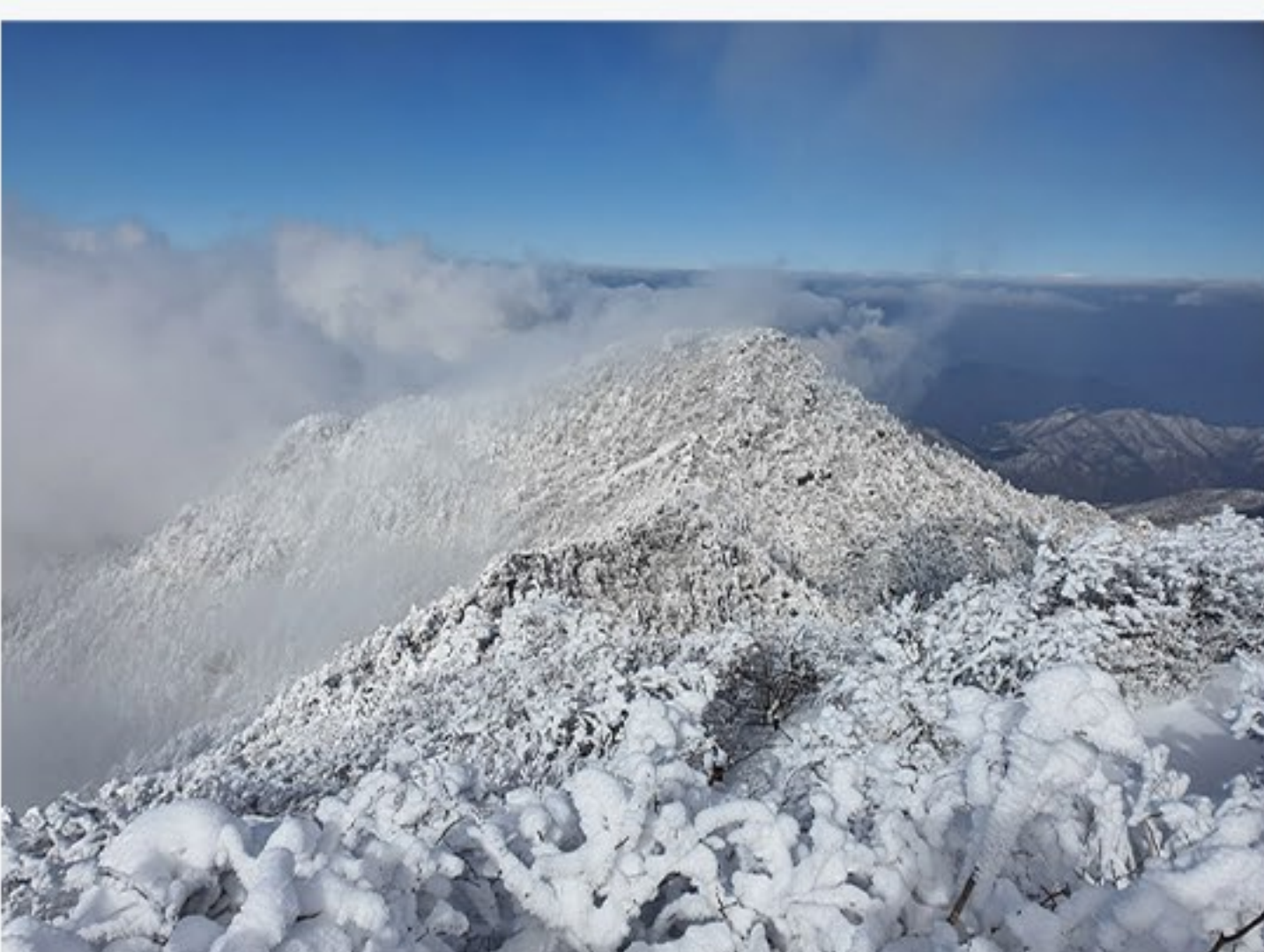
등반을 통해 느낀 점과 보람

남한 내륙 최고봉인 천왕봉(1915m)을 500번이나 올랐다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처음 산에 올랐을 때 보았던 나무 기둥 '정상목'이 우람한 '정상석'으로 바뀌는 세월을 함께하며 저 또한 성장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정상에 서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습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웅크렸던 자신을 벗어나고 타인을 포용할 여유를 배우는 것, 그것이 지리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의 산행 계획

현재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오르Go함양 15봉' 완등에 도전 중이며, 삼봉산·삼정산·와불산 세 곳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완료한 후 다시 지리산의 매력에 빠져들 생각입니다. 다음 목표는 천왕봉 600회 등반이며, 그 때는 사위, 딸과 함께 오를 계획입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길' 800km를 완주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지리산 종주를 꿈꾸는 이들에게

지리산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기에 철저한 계획과 안전 장비(등산화, 배낭, 스틱 등)가 필수입니다. 본인의 체력을 먼저 점검하고, 종주 전 천왕봉을 한두 번 미리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리산 종주에는 태극종주(97km), 화대종주(46km), 성중종주(34km), 성백종주(36km) 등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덥지도 춥지도 않으면서 야생화와 단풍이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추천하며, 선답자의 조언을 듣고 대피소 예약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안전한 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진관

하동사업처 인근 복지관
장수사진 행사 현장

'영정 사진'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부르는 **장수 사진**, 미리 찍어두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 밝게 웃는 모습으로 남기는 것이 특징이죠. 한전산업은 올 상반기 삼천포사업처에 이어 두 번째로 하동사업처에서 하동 금성면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활동 '행복한 사진관'**을 진행했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한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카메라 앞은 언제나 어색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

카메라 앞에 서기 전, 복지관 한켠은 어느새 작은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저마다 가장 빛나는 모습을 준비합니다. 의자에 단정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는 어르신의 모습. "잘 찍어주이소." 한마디를 남기고 카메라 앞에 앉은 어르신. 처음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내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셔터가 눌릴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한 장의 사진 속에 고이 담깁니다.

어르신! 건강의 비결이 뭔가요?



환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하는 88세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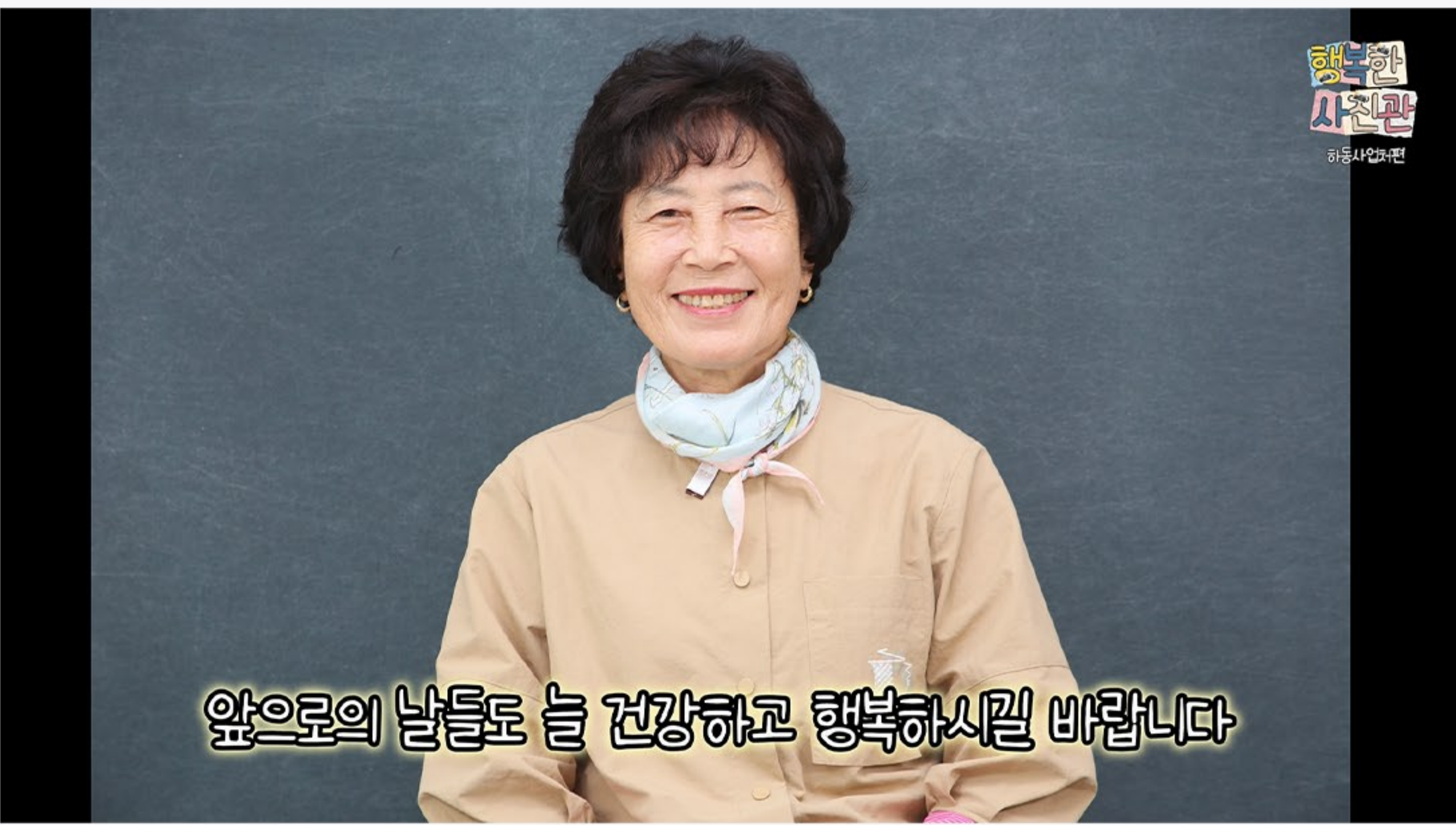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 중 최고령인 88세 어르신께 건강의 비결을 여쭙봤습니다. "기쁘게만 살면 돼. 눈앞에 펼쳐진 자연, 햇살,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거지." 거창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감사함을 찾는 마음가짐, 그것이 팔십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어르신의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는 어르신

금성면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한 해 한 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력운동이랑 단백질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 나이 들수록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취재진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한 마디에 피로가 싹~!



기본 좋은 인터뷰가 끝나고, 행복한 사진관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봉사가 진심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전산업개발의 '행복한 사진관',
다음엔 또 어느 사업처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따뜻한 나눔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한번바**

▶ 유튜브 '한번바'

지금 보신 콘텐츠를
보다 생생하게!
유튜브 **한번바**에서
영상으로 만나요!

나눔의 현장

의류 기부부터 문화 나눔까지 안팎으로 채우는 따뜻한 동행

한전산업은 올 상반기 의류 기부부터 문화 나눔 활동까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왔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사람과 지역을 잇는 한전산업의 따뜻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본사



본사 의류 기부 단체사진

옷장 속 잠든 옷에 새 생명을, 2026년 상반기 '옷캔' 의류 기부 성료

계절이 바뀌면서 안 입는 옷들을 재활용하고, 사내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글로벌 구호 단체 '옷캔(OTCAN)'과 함께한 2026년 상반기 의류 기부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본사는 물론 태안, 당진, 삼천포 등 전국 10개 사업처에서 총 326명의 임직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들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옷들을 정성껏 분류해 총 189박스나 모아주셨는데요. 이 구호품들이 해외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박스당 1만 원씩, 총 189만 원의 기부금도 배송비로 함께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넘어,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던 생생한 나눔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만나보실까요?



봉사시간 기본정보 적는 모습



의류 기부하는 사장님의 모습



의류 기부 상자에 의류 넣는 모습



의류 기부 상자에 의류 넣는 모습



의류 나눔 박스 준비 모습



의류 분류 하는 모습

당진사업처



푸드트럭 준비중인 사장님과 노조위원장

사장님이 쓴다! 당진사업처 노사합동 푸드트럭 행사

지난 3월 16일, 당진사업처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노사 합동 푸드트럭이 찾아왔어요! 이날 함흥규 사장님과 송홍곤 노조위원장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는데요. 500여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분들께 맛있는 떡볶이와 어묵을 직접 배식하며, 딱딱한 회의실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진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사내 탈북민 직원분의 KBS 인터뷰도 진행되어 상생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노사가 하나 되어 훈훈했던 당진사업처의 하루는 사내 공식 유튜브 채널 '한번바'에서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전국 사업장을 부지런히 돌며 끈끈한 현장 소통을 쪽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해사업처



최평진 사원 동해사업처 기계2과

출근길에 만난 골든타임, 위기를 막은 값진 실천

“위험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300m 앞의 화마를 잠재우며 대형 재난을 막아낸 기계2과 최평진님의 망설임 없는 행동이 만든 기적 같은 하루의 이야기를 여쭙보았습니다.

(MINI INTERVIEW)

Q.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해사업처 기계2과에서 근무 중인 최평진입니다.

Q. 아침 출근길에 큰불을 막으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A. 5월 7일 출근길에 북평공단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난 걸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최초 발견자분이 신고를 하고 계셨고, 저는 직감적으로 소화기가 필요하다 싶어 근처 건물에서 급히 분말소화기 2대를 구해왔어요.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불길이 번지고 있어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고자분과 함께 초기 진화를 하고 잔불을 잡아 큰불을 막을 수 있었죠. 이후 도착한 소방대원분들과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 무사히 출근했습니다.



화재현장

Q.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망설임 없이 나서신 계기가 있을까요?

A. 화재 현장 근처에 동해화력과 동해저유소가 있어서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도 적어서, 위험이 커지기 전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평소 회사에서 꾸준히 받아온 화재 예방 교육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Q.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다고요?

A. 네, 감사하게도 동해시청과 관할 소방서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연락을 주셨어요. 저를 연말 표창 및 강원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쑥스럽지만 참 뿌듯했습니다.



소방관 화재진압 현장

Q. 마지막으로 동료들이나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화재는 천재지변과 달리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년 포항·영덕 산불처럼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일치기 한산

하동사업처 직원들이 추천하는
현지인 추천 1day 하동 여행 코스

굽이치는 섬진강부터 다도해 남해, 신비로운 지리산과 녹차까지.
하동사업처 직원들이 강력 추천하는 하동지역 여행지! 알짜배기 코스만
쑥쑥 뽑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동사업처 직원 여러분들, 하동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하동! 하동사업처 직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자연 속의 힐링부터 액티비티, 그리고 맛있는 향토 음식과 수제버거까지 알차게 구성된 코스를 따라 함께 여행해봅시다!

삼성궁(배달성전삼성궁)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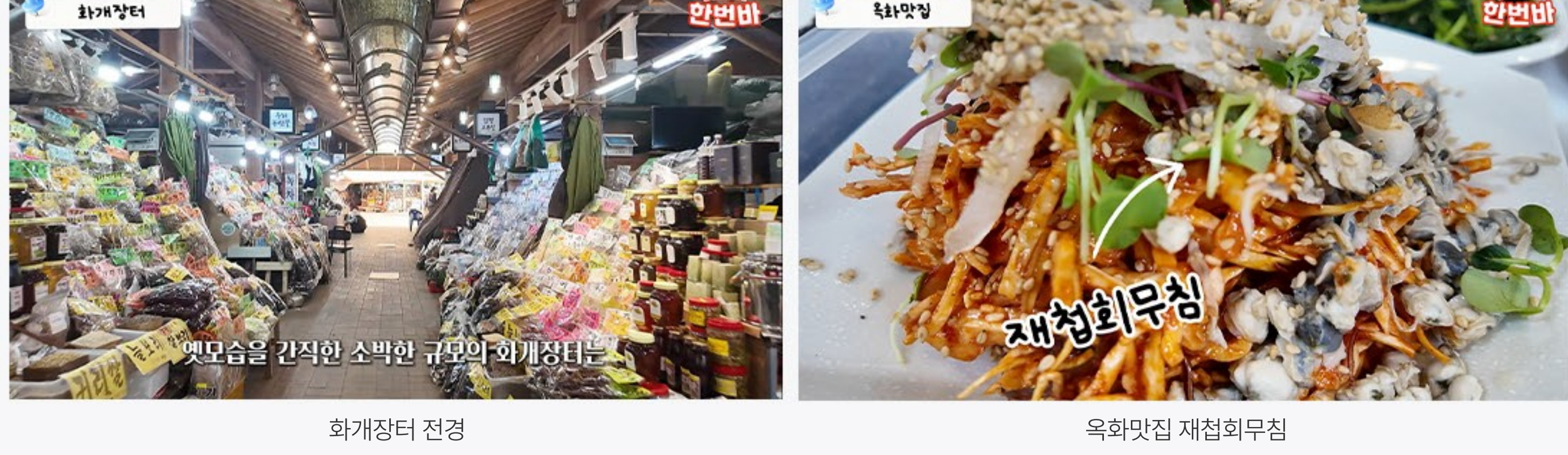


삼성궁 전경

고조선 시대의 신성한 장소 '소도'를 복원한 곳으로, 1,500여 개의 돌탑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어우러져 신비롭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리산 자락 해발 850m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를 둘러보는 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화개장터 & 옥화맛집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전경

옥화맛집 재첩회무침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즐기따라 화개장터엔~’ 가수 조영남의 노래로 유명한 화개장터. 옛 모습을 간직한 정겨운 전통시장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옥화맛집은 화개장터 내에 위치한 식당으로, 시원한 재첩국, 매콤새콤한 재첩회무침, 밥도둑 참게장 정식이 일품인 화개장터 제일의 맛집입니다.

쌍계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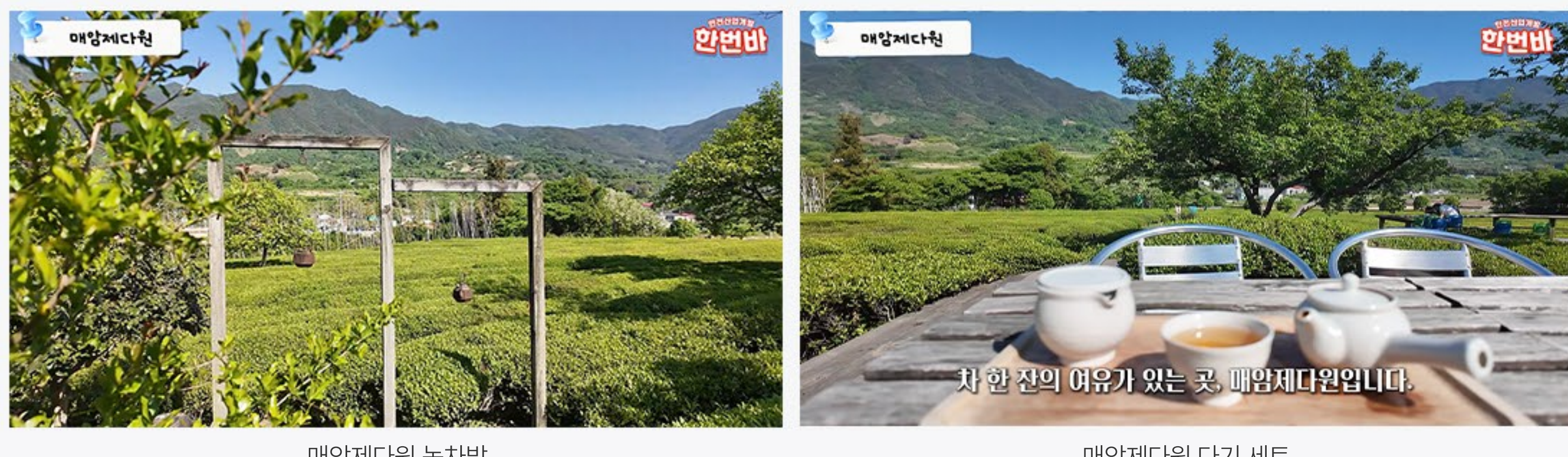
쌍계사 구층석탑

대웅전 내부

840년 신라시대에 창건된 지리산의 유서 깊은 사찰. 화려한 구층석탑과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을 비롯, 사찰 곳곳의 계곡 물소리와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평온하게 힐링할 수 있습니다.

매암제다원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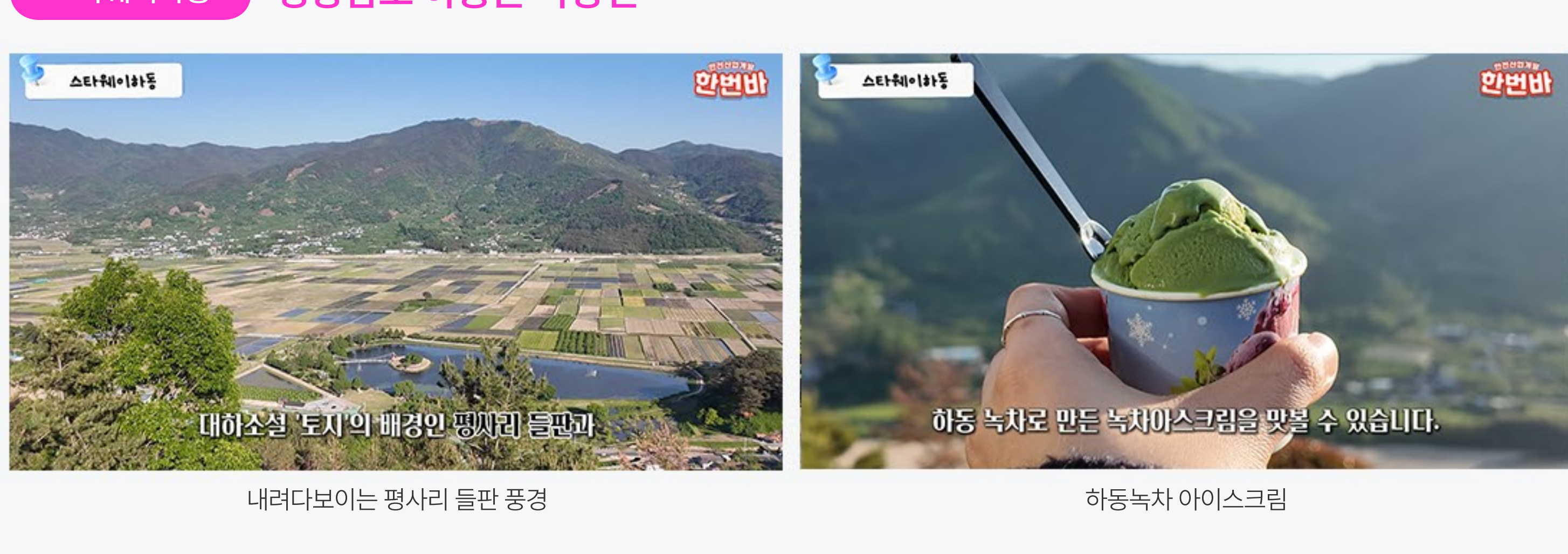
매암제다원 녹차밭

매암제다원 다기 세트

드넓게 펼쳐진 푸른 녹차밭과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다원. 차와 다기를 제공받아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직접 차를 우려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웨이하동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내려다보이는 평사리 들판 풍경

하동녹차 아이스크림

섬진강 수면 150m 상공에 세워진 스카이워크 겸 카페. 스카이워크를 따라 걸으며 굽이치는 섬진강과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인 평사리 들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하동 녹차로 만든 녹차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습니다.

고하버거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버거 하와이안샐러드버거 & 치즈헤이컨버거

금강산도 식후경!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제버거 맛집. 육즙이 팡팡 터지는 패티와 신선한 야채가 어우러져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합니다.

코리아 줍와이어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출발 전 모습

줍와이어 타는 모습

총 길이 3,420m로 아시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코리아 줍와이어. 해발 849m 금오산 정상에서 출발해 총 4번의 활강을 하며,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바람을 가르며 활강하는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의 힐링부터 액티비티, 그리고 맛있는 향토 음식과 수제버거까지 알차게 구성된 코스이니 하동 여행을 계획하실 때 적극 활용에 보시길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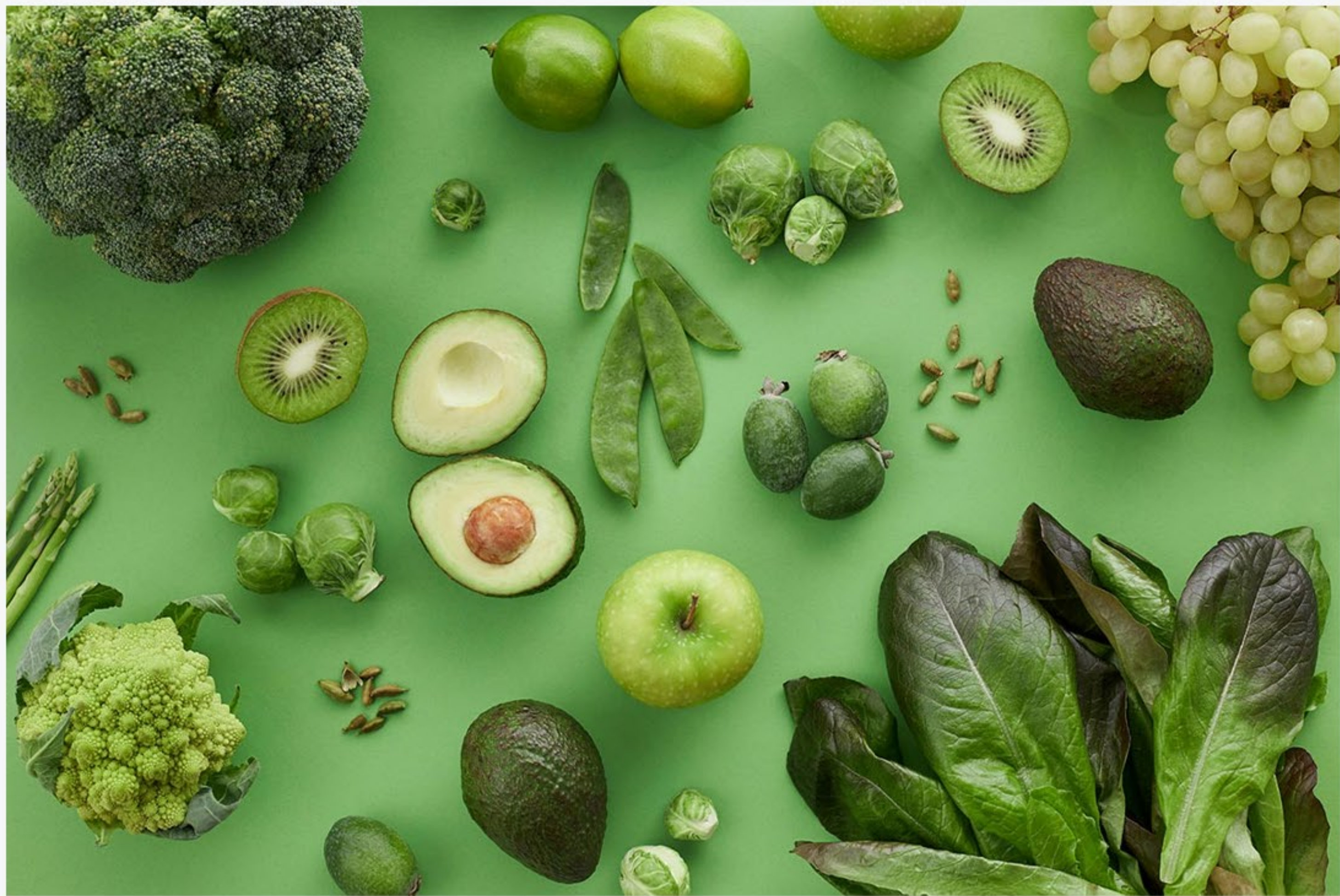
생생한
현장을
한번바

▶ 유튜브 '한번바'
지금 보신 콘텐츠를
보다 생생하게!
유튜브 '한번바'에서
영상으로 만나요!

요리해 봄

봄의 향기를 담은,
한산인들이 소개하는 제철 레시피

따스한 햇살과 산뜻한 바람이 일상을 채우는 봄입니다. 봄은 자연이 가장 먼저 식탁 위에 계절의 변화를 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향긋한 봄나물부터 싱싱한 제철 식재료까지, 짧은 계절이기에 더욱 특별한 맛을 선사합니다. 요리해 봄 코너에서는 한전산업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봄 제철 요리를 소개합니다. 각자의 식탁 위에 담긴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레시피와 함께, 몸과 마음을 깨우는 봄의 맛을 만나보세요.



삼천포사업처 배세영

제철인 아삭아삭 마늘쫘 베이컨 오일 파스타

마늘쫘 베이컨 오일파스타

- **재료** | 파스타면, 마늘쫑, 베이컨, 마늘, 올리브오일, 굴소스
- **레시피** | 먼저 1인분정도의 파스타면을 소금 크게 한 스푼 정도 넣은 끓는 물에 7~8분정도 삶아둡니다. 그다음 준비한 베이컨과 마늘 5알을 편을 썰어 올리브오일 듬뿍 올린 팬에 볶아줍니다. 마늘과 베이컨이 잘 익었으면 마늘쫑과 삶아둔 파스타면 그리고 면수 두 국자, 굴소스 한 스푼 넣어준뒤 취향에 맞게 소금과 후추간을 한뒤 잘 볶아주면 아삭한 마늘쫑이 들어간 베이컨 오일파스타 완성!



당진사업처 김설

맵단짠!(맵고.단.짠) 사과오이미나리초무침

사과 오이 미나리 초무침

- **재료** | 사과, 오이, 미나리, 식초, 고춧가루, 알룰로스, 진간장, 멸치액젓, 깨소금, 참기름
- **레시피** | 미나리를 식초물에 1시간 이상 담궈서 여러번 세척해주세요. 사과와 오이와 미나리를 같은크기로 잘라채썰어주세요. 볼에 사과, 미나리, 오이를 담고 고춧가루 3스푼 식초 두바퀴 알룰로스 두바퀴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깨소금과 참기름 둘러서 무쳐주세요. 수육과 같이 싸먹으면 맛있습니다♥



대외협력실 김희주

알록달록 봄을 닮은 토마토 바질 치킨 샐러드

토마토 바질 치킨 샐러드

- **재료** | 닭가슴살, 방울토마토('단짠' 좋아하시면 스테비아토마토!), 꼬치렐라, 바질페스토, 병아리콩
- **레시피** |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그릇에 담아준 후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을 뿌려주세요. 닭가슴살, 치즈, 바질페스토, 병아리콩을 적당히 먹기 좋게 담아주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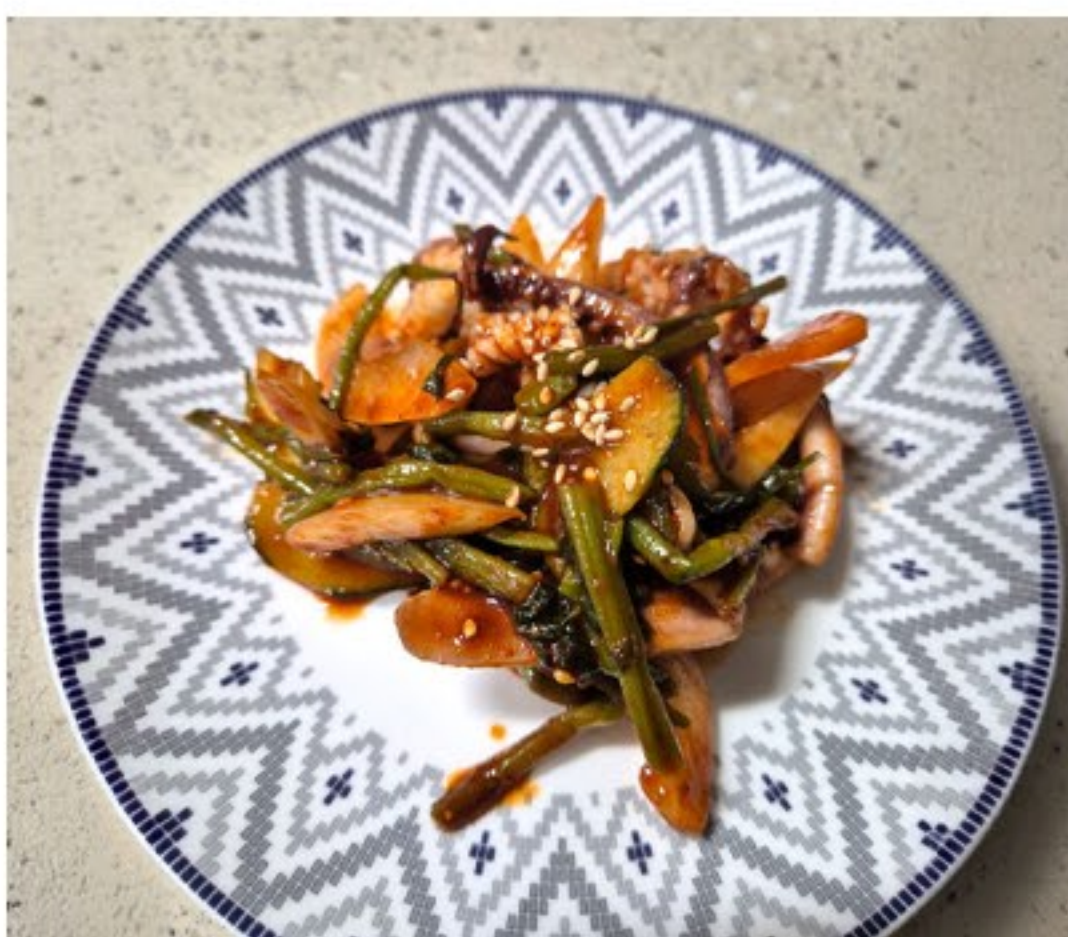


여수사업처 김은선

봄향기 가득한 미나리 오징어 무침

미나리 오징어 무침

- **재료** | 당근, 양파, 오이, 깨, 미나리, 오징어, 초고추장(고추장 3, 설탕1, 식초 1 비율)
- **레시피** | 오이, 당근 1/2로 자른 후 반달모양으로 썰고, 양파 채썰어주고, 미나리도 먹기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오징어는 껍질 제거 후 칼집 내서 끓는물에 데쳐서, 초고추장과 오이, 당근, 양파, 미나리, 오징어 버무린 후 마지막에 깨 뿌려주면 완성!



보고싶다 동료야!

봄바람에 실어 전하는,
동료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마디

푸르른 초록빛이 짙어지고, 봄이 한층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루를 만들어가는 동료들은 든든한 힘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평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소개합니다. 진심 어린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잔잔한 봄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카시아
우정, 깨끗한 마음

보령사업처 김민수가 보령사업처 김용찬에게

입사 초에는 사번도 제대로 못 외워서

출근할 때마다 ‘내가 진짜 여기 직원 맞나...’ 싶었고, 같이 “과연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신 차려 보니 어느새 4년 차를 바라보고 있네요.
이제는 퇴근 시간 계산이 누구보다 빨라진 걸 보면 제법 회사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서 괜히 웃기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같이 투덜거리고 웃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가끔 예전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오랜만에 얼굴도 한 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회사에 대한 열정보다는 월급에 대한 책임감으로 오래 버텨봅시다



프리지아
영원한 우정

DS가 신보령사업처 홍성표에게

성표군, DS입니다.

익명을 위해 DS라고 했지만, 이 정도면 누군지 충분히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모른 척하시면, 다음에 뵈 땀 바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요즘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전히 성실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웃으실 때 묘하게 사람 놀리고 싶게 만드는 그 표정, 아직도 그대로이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뵈고 제대로 놀리고 싶습니다.
맥주 한잔에 금방 얼굴 붉어지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잔 들어가면 조금이나마 말 많아지시던 것도 그대로이실 것 같고, 개구장이같던 당신이 가끔 생각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괜히 예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 번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
존경, 감사

제주사업처 방진호가 발전사업2처 정양우에게

정양우 처장님께

처장님을 사업소에서 처음 뵈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십수년이 지나버렸네요..

언제나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은 못드리지만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용기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지금과 같이 후배들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일락
젊은 날의 추억

신사업운영1실 박윤현이 당진사업처 강일구에게

일구야, 잘 지내고 있지?

문득 우리 신당진에서 입사 동기로 만나 동고동락하던 시절이 떠올라 글을 남겨본다.

그때 우리는 정말 ‘폐수동의 전사들’이었지.
시운전을 하며 각종약품 냄새 속에 적정 pH 수치를 맞추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잖아.
pH가 조금만 안 맞아도 엄격하게 지도해주셨던 문조일 실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를 전두지휘하며 든든하게 이끌어주셨던 ‘우창이 형’ 정우창 선배님이 계셨기에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사실 그 시절엔 힘들어서 불만도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잘 타일러 주시며 이끌어주신 그 가르침들이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한 마음뿐이야.
(우창이 형, 잘 지내고 계시죠^^?)



박윤현 차장(좌측 첫 번째), 강일구 차장(좌측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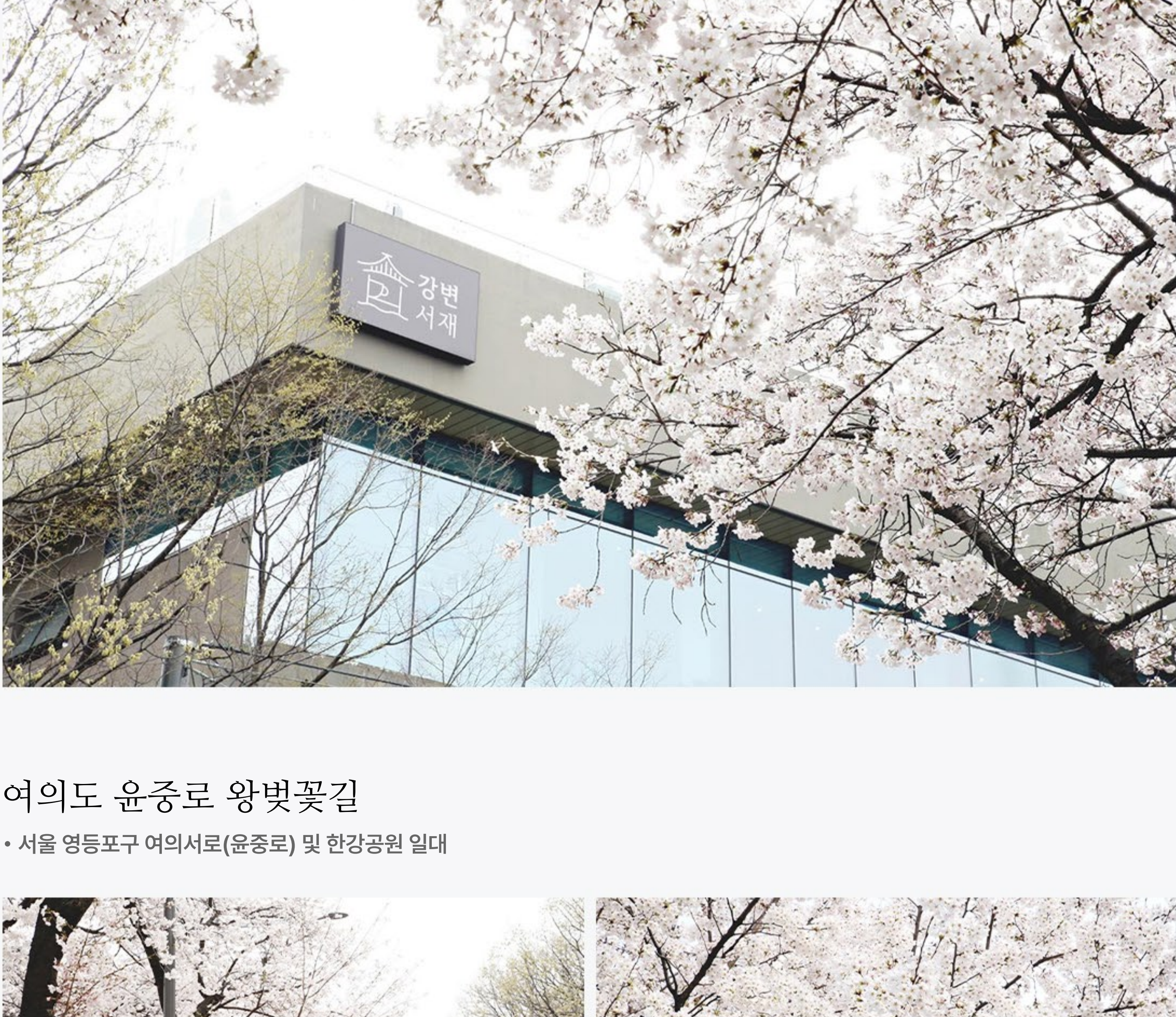
굉음이 울리는 기계 소리 때문에 통신도 안 되는 지하에서 수신호로 물을 끄고 켜라고 신호를 주고받던 순간들, 그리고 P&ID 도면과 마킹 펜 하나 들고 돌아다니며 복잡한 설비 라인을 외우고 리크처를 표시하던 열정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시 시운전 업체였던 엔텍과 STX를 상대로 설비 라인의 문제점을 당당하게 논의하며 현장을 누비던 그때가 정말 좋았어. 가성소다와 황산 누출 사고로 가슴 졸이며 현장을 수습하던 때나, 갑작스러운 트립으로 3차 침전조 스크래퍼가 멈췄을 때까지... 시운전 기간 우리가 발로 뛰며 지켜냈던 시간들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네. 고장 난 탈수기 앞에서 묵묵히 직접 작업을 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뜨거웠던 시절이 가끔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일구야,
올해는 꼭 만나서 얼굴 보며 소주 한잔하자. 보고 싶다!

봄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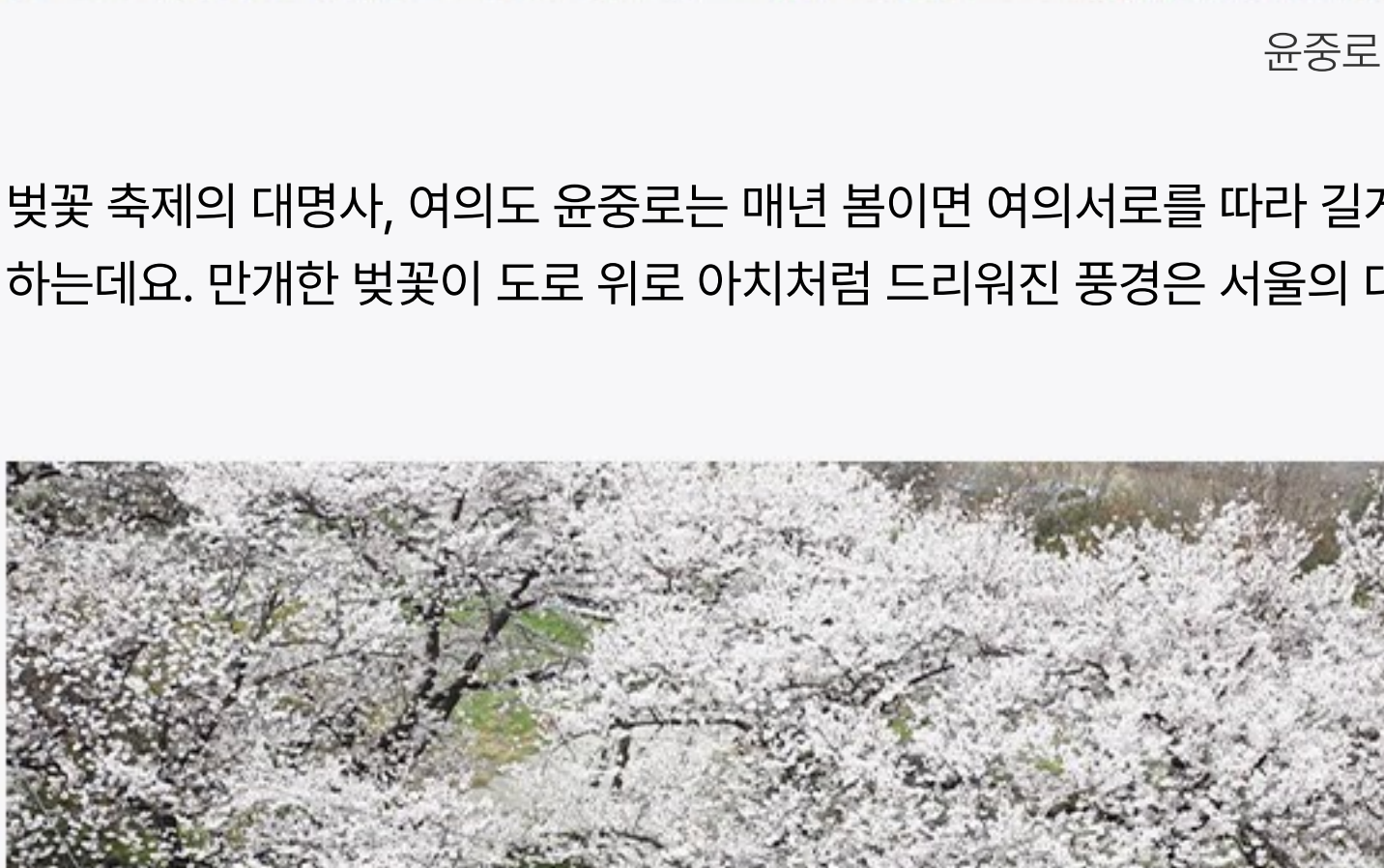
봄의 꽃 축제 현장을 담아

거리를 걷다가 어느새 활짝 핀 꽃을 마주하면, 비로소 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잠들어 있던 만물이 깨어나는 설레는 계절 봄, 봄을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연 속에서 봄꽃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닐까요?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봄꽃 명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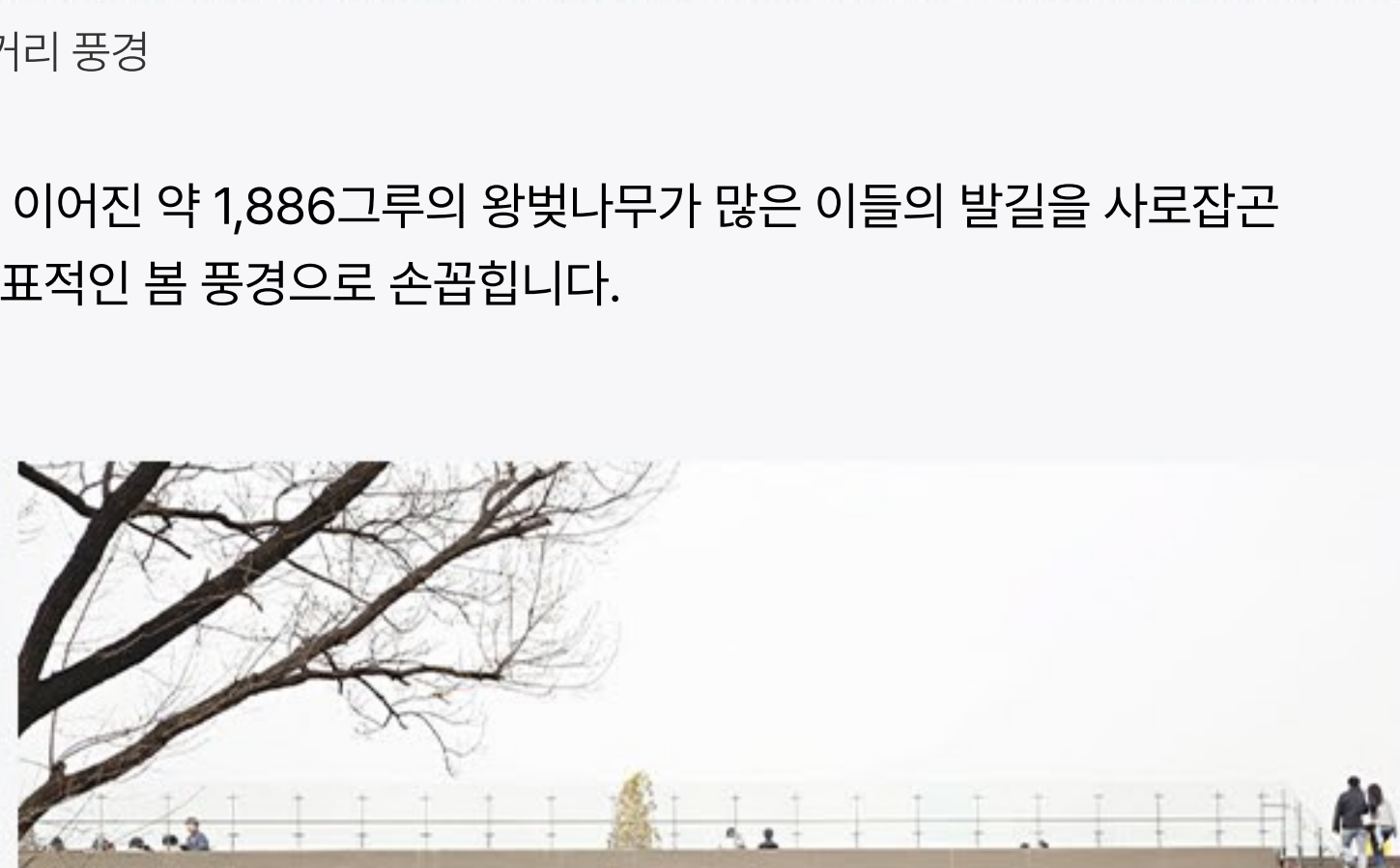


여의도 윤중로 왕벚꽃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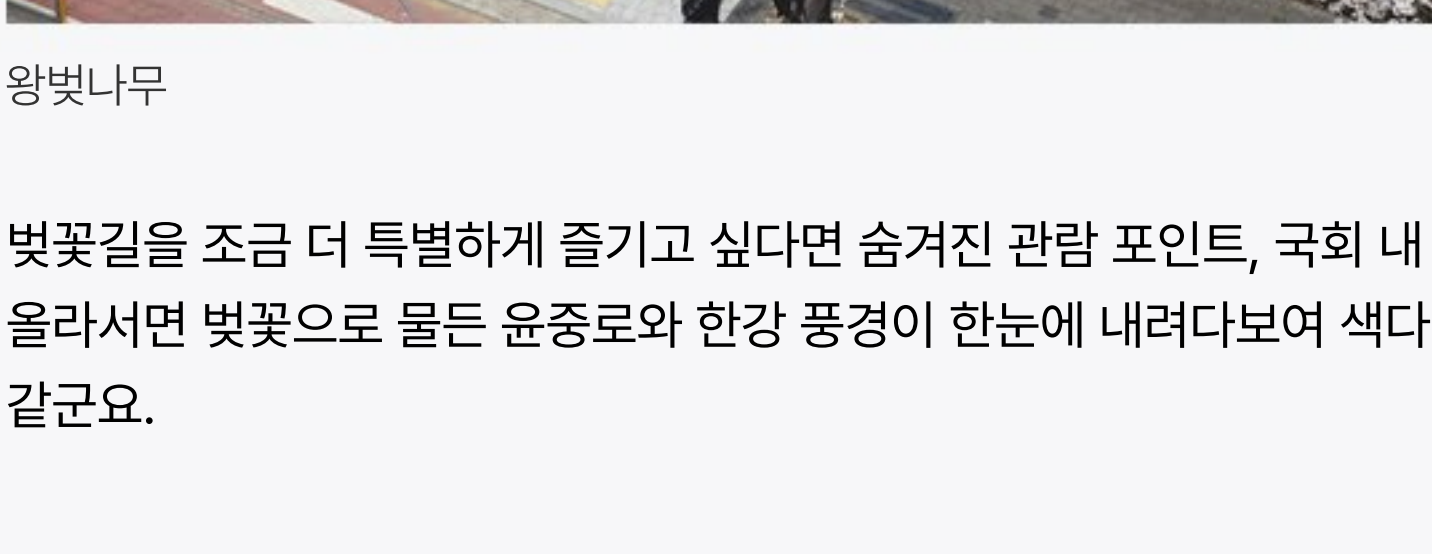
•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윤중로) 및 한강공원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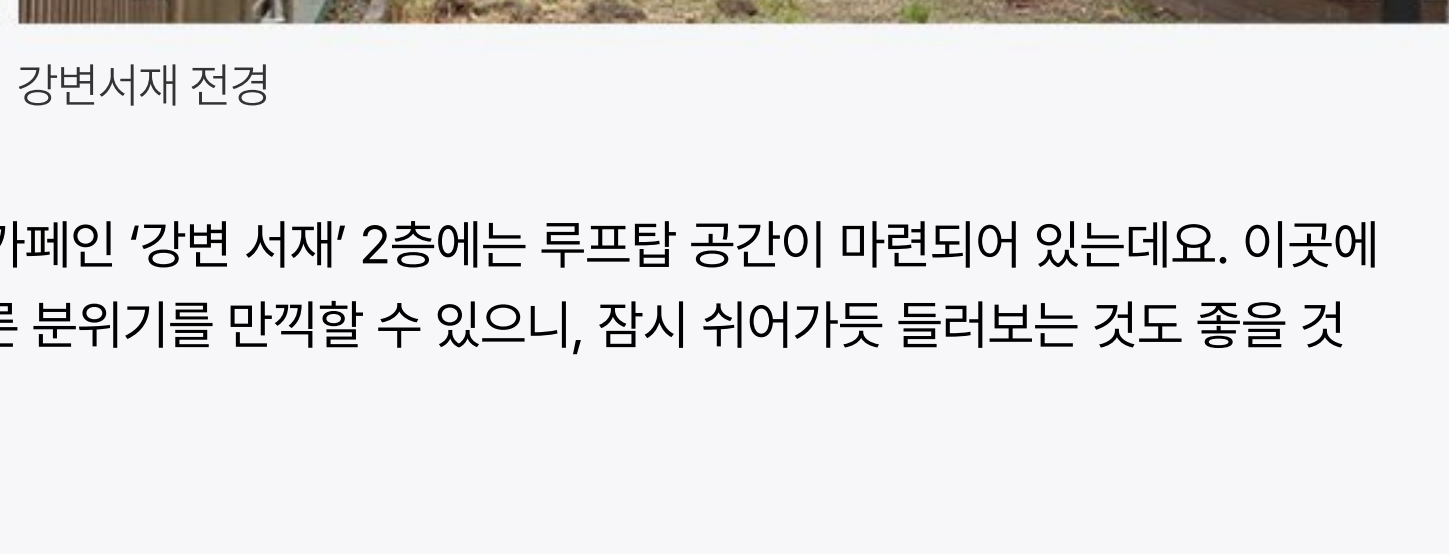
윤중로 거리 풍경



벚꽃 축제의 대명사, 여의도 윤중로는 매년 봄이면 여의서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약 1,886그루의 왕벚나무가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곤 하는데요. 만개한 벚꽃이 도로 위로 아치처럼 드리워진 풍경은 서울의 대표적인 봄 풍경으로 손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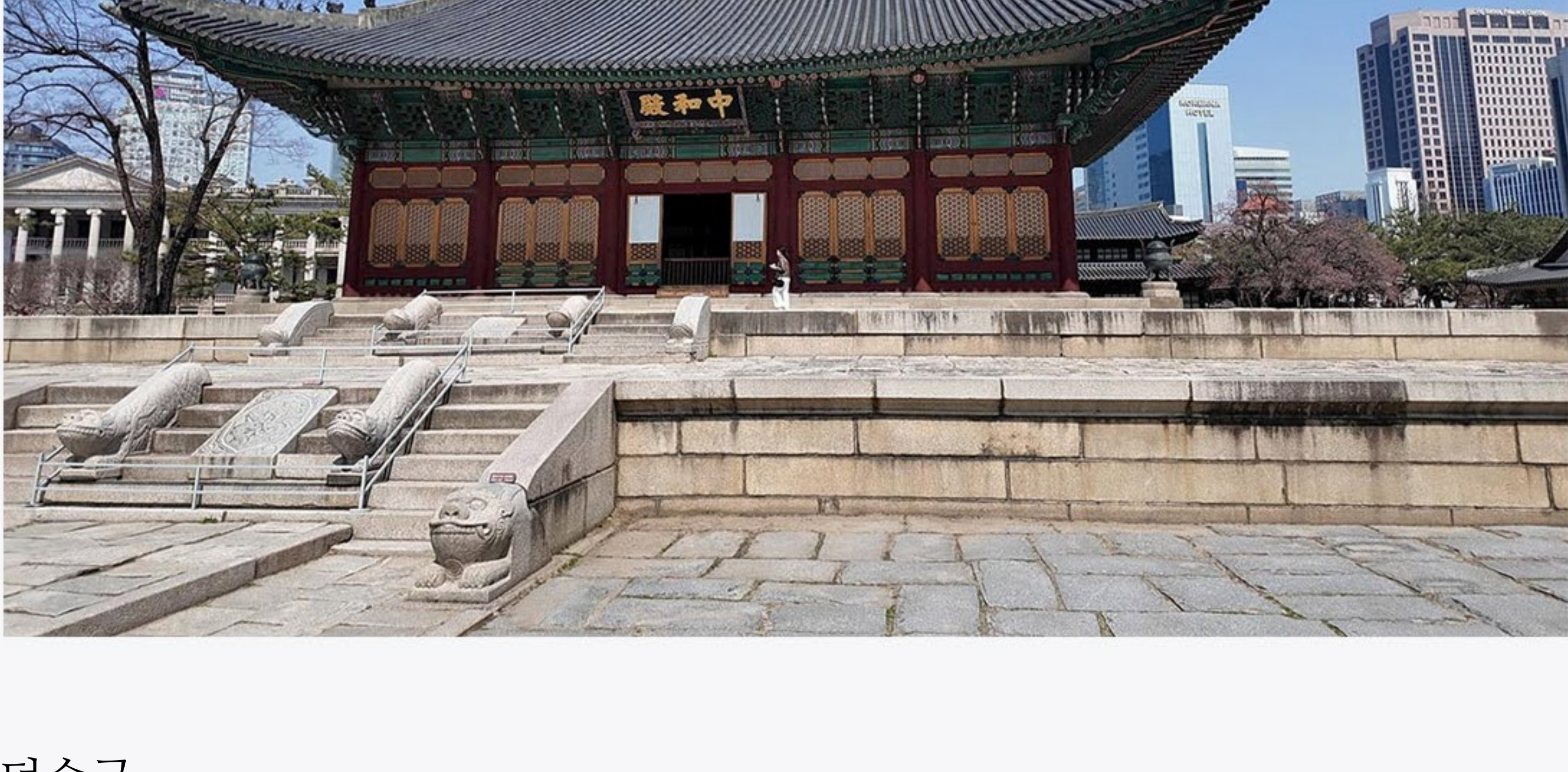


왕벚나무



강변서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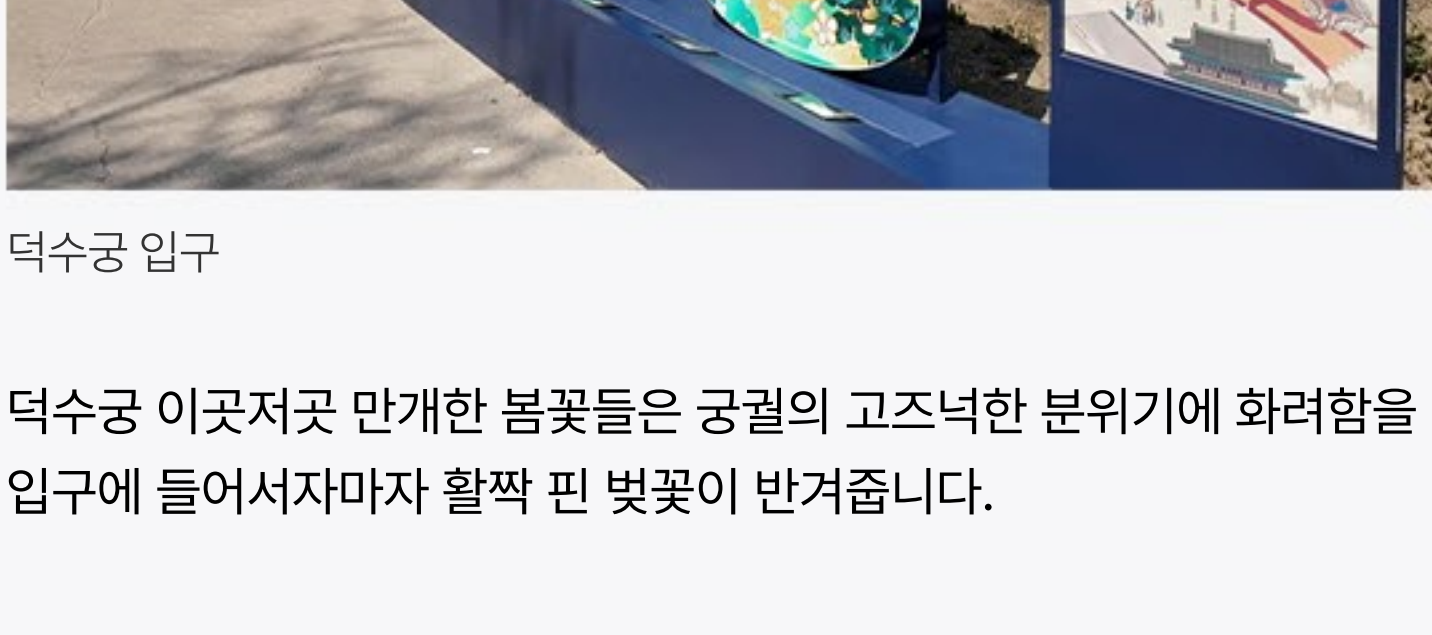
벚꽃길을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숨겨진 관광 포인트, 국회 내 카페인 '강변 서재' 2층에는 루프탑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서면 벚꽃으로 물든 윤중로와 한강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색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으니, 잠시 쉬어가듯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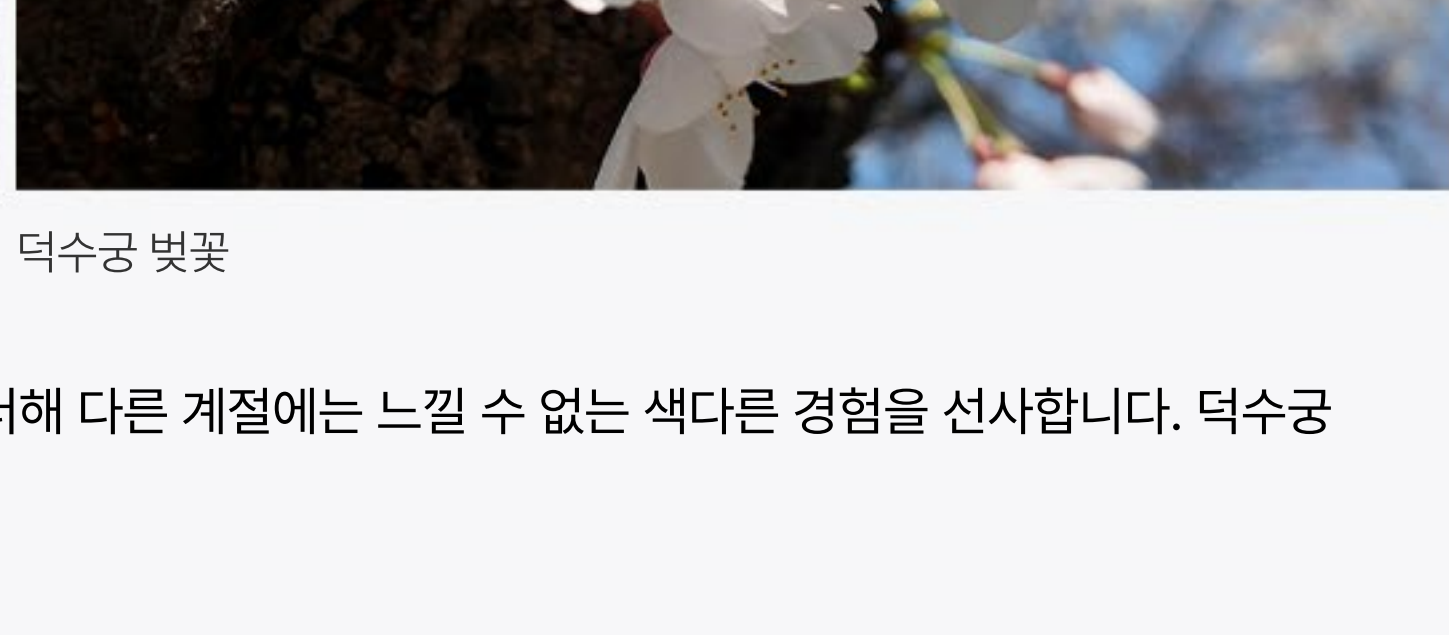
덕수궁

•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서울 시청역 2번 출구에서 100M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나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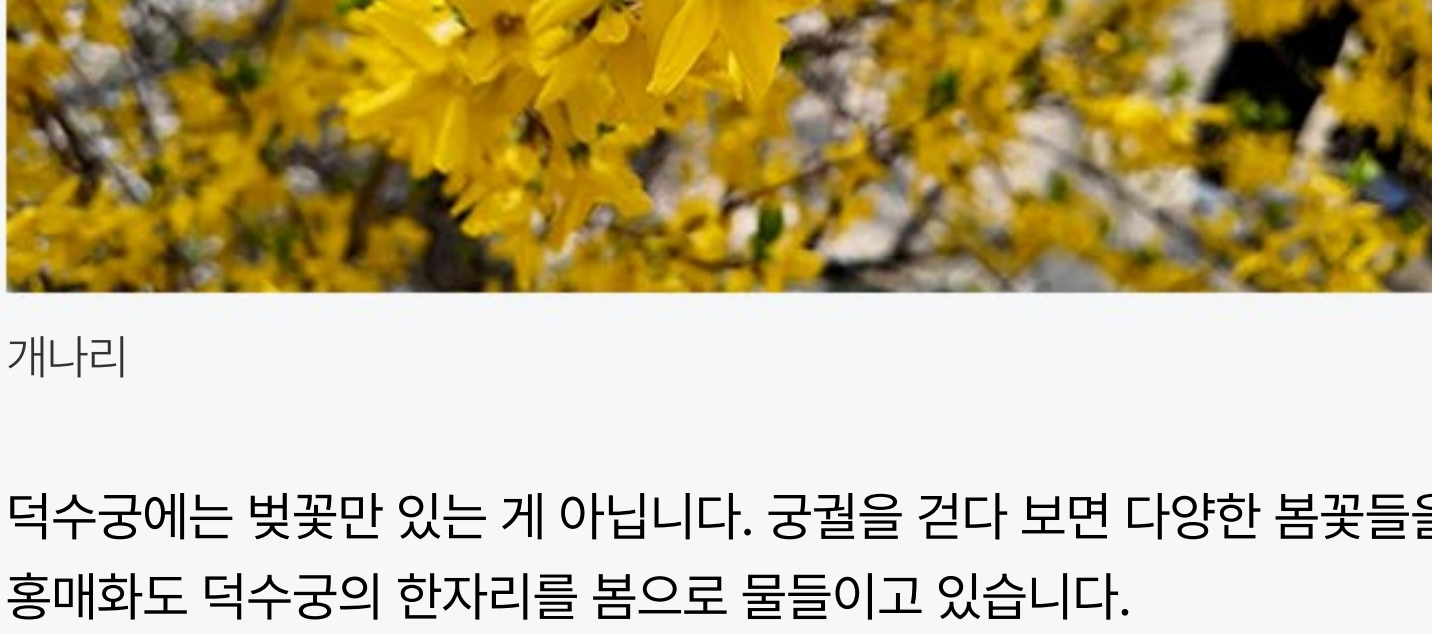


덕수궁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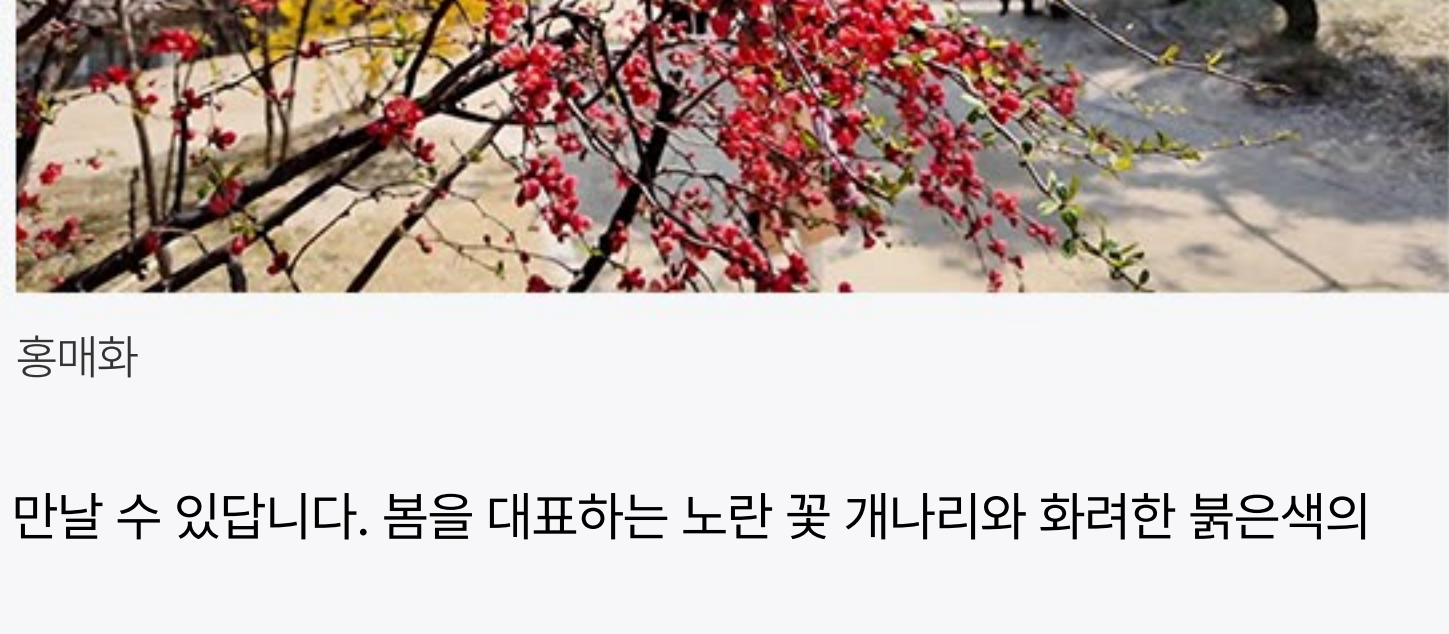


덕수궁 벚꽃

덕수궁 이곳저곳 만개한 봄꽃들은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화려함을 더해 다른 계절에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경향을 선사합니다. 덕수궁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짝 핀 벚꽃이 반겨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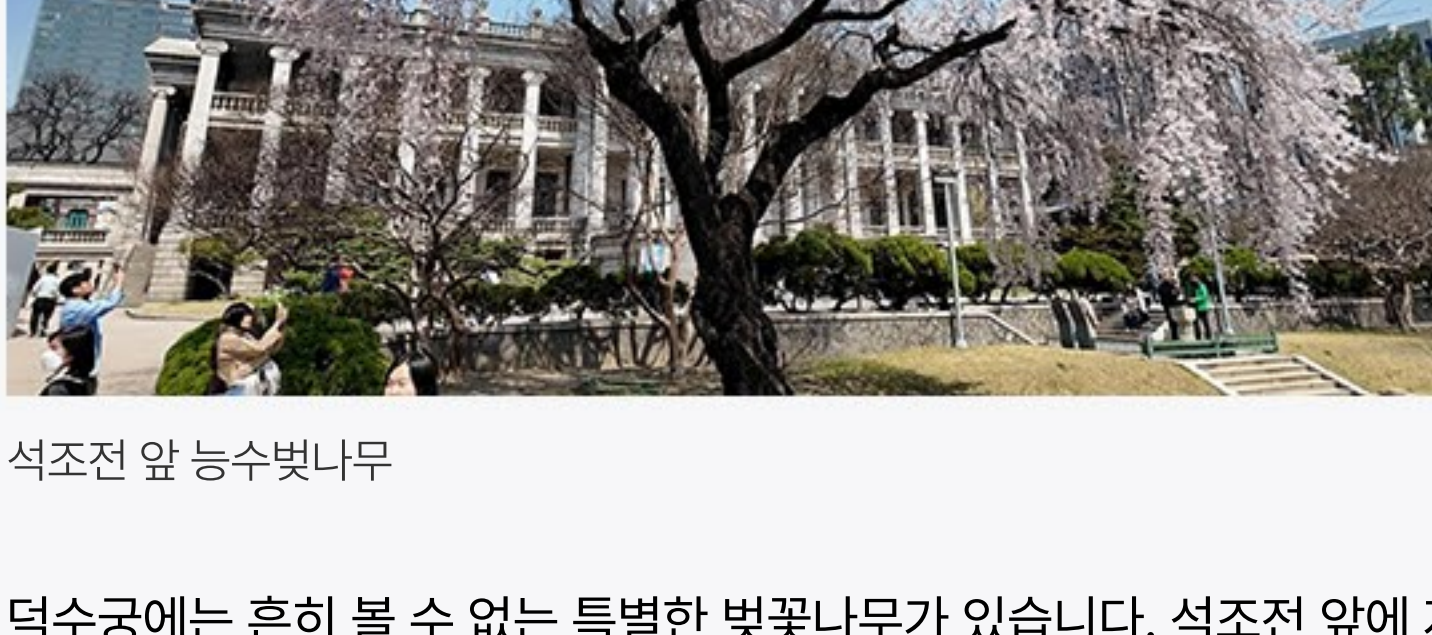


개나리



홍매화

덕수궁에는 벚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궁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봄꽃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봄을 대표하는 노란 꽃 개나리와 화려한 붉은색의 홍매화도 덕수궁의 한자리를 봄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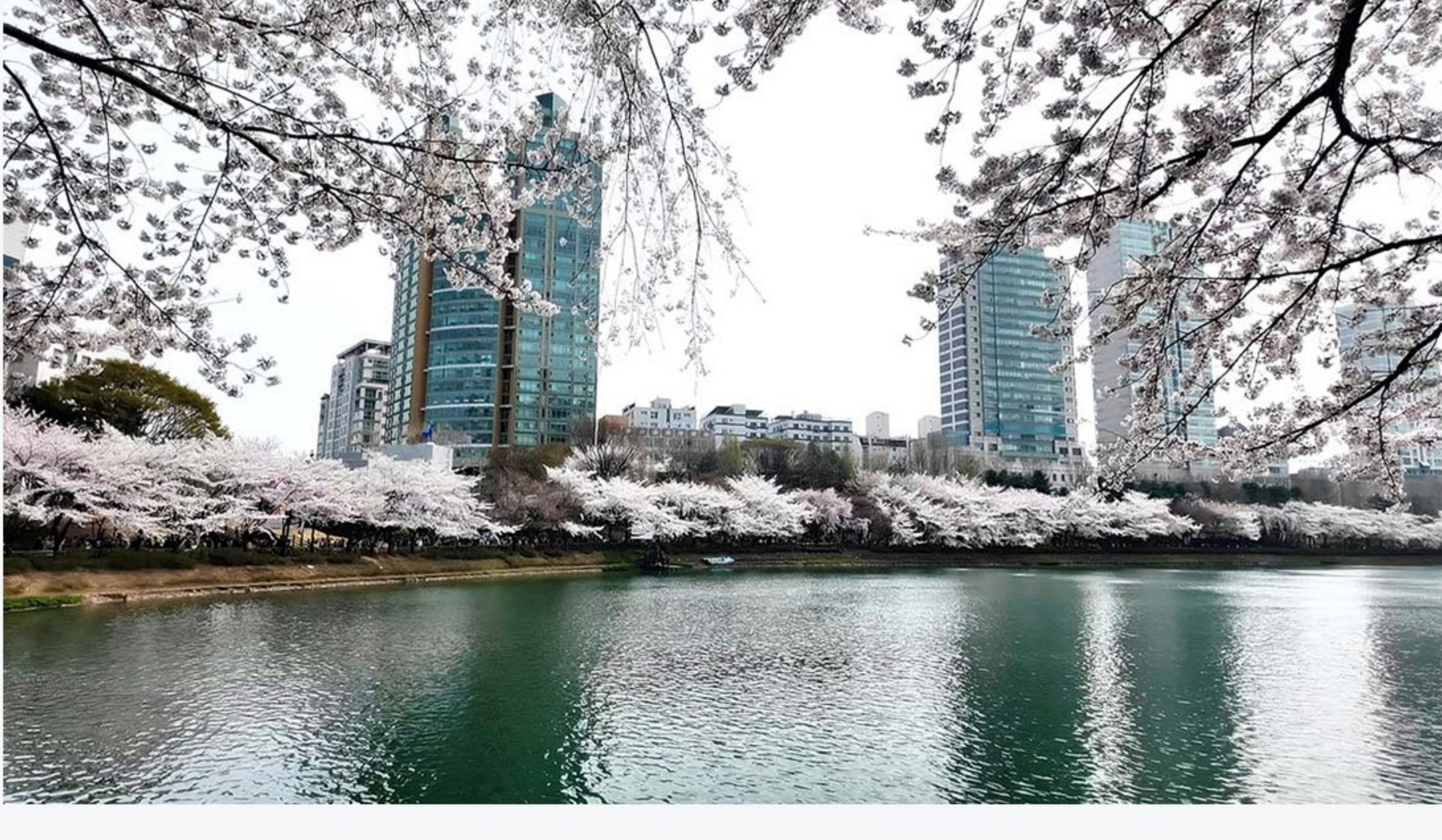


석조전 앞 능수벚나무



덕수궁 석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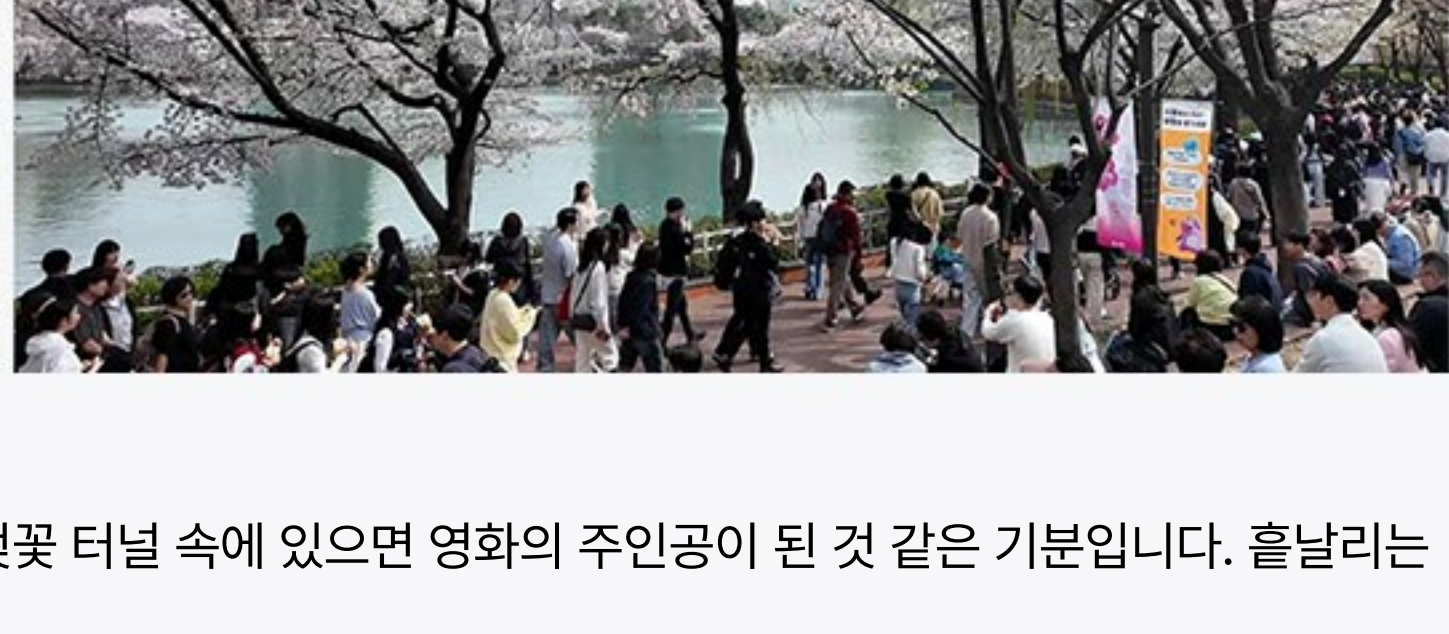
덕수궁에는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석조전 앞에 자리 잡은 능수벚나무가 그 주인공! 바람이 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꽃과 함께 흔들리며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듯 봄의 덕수궁은 궁궐과 어우러지는 꽃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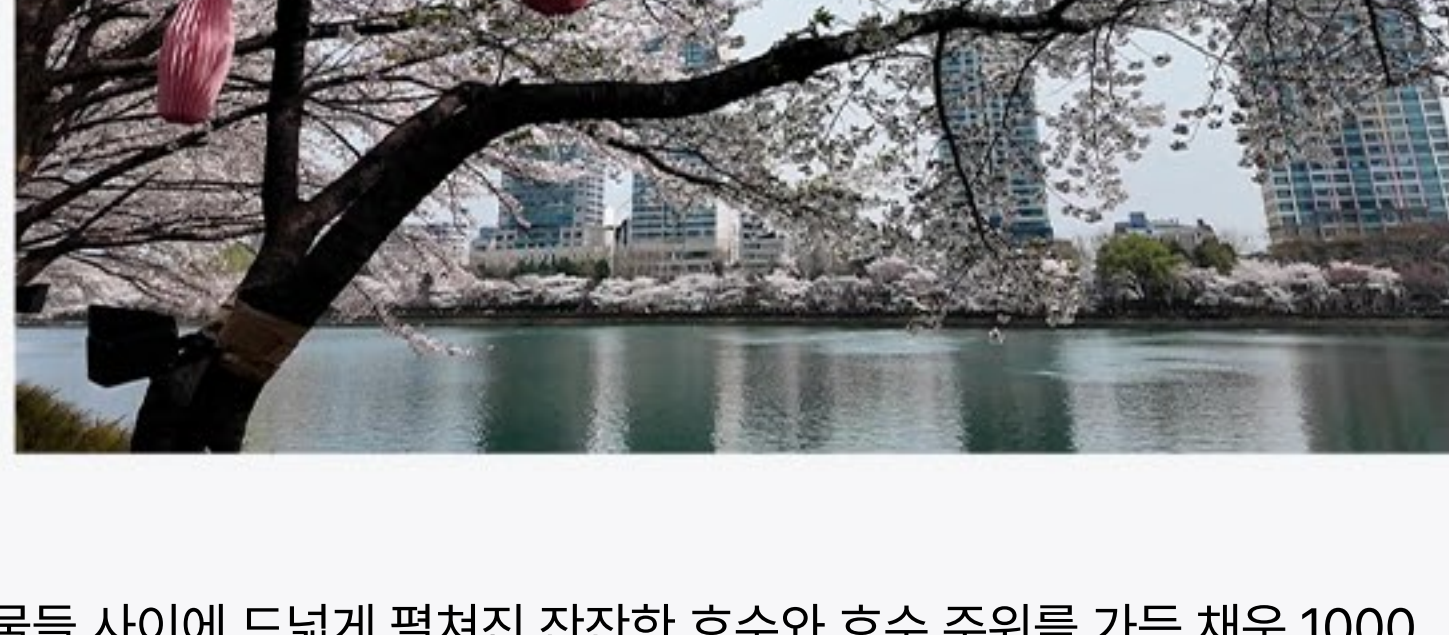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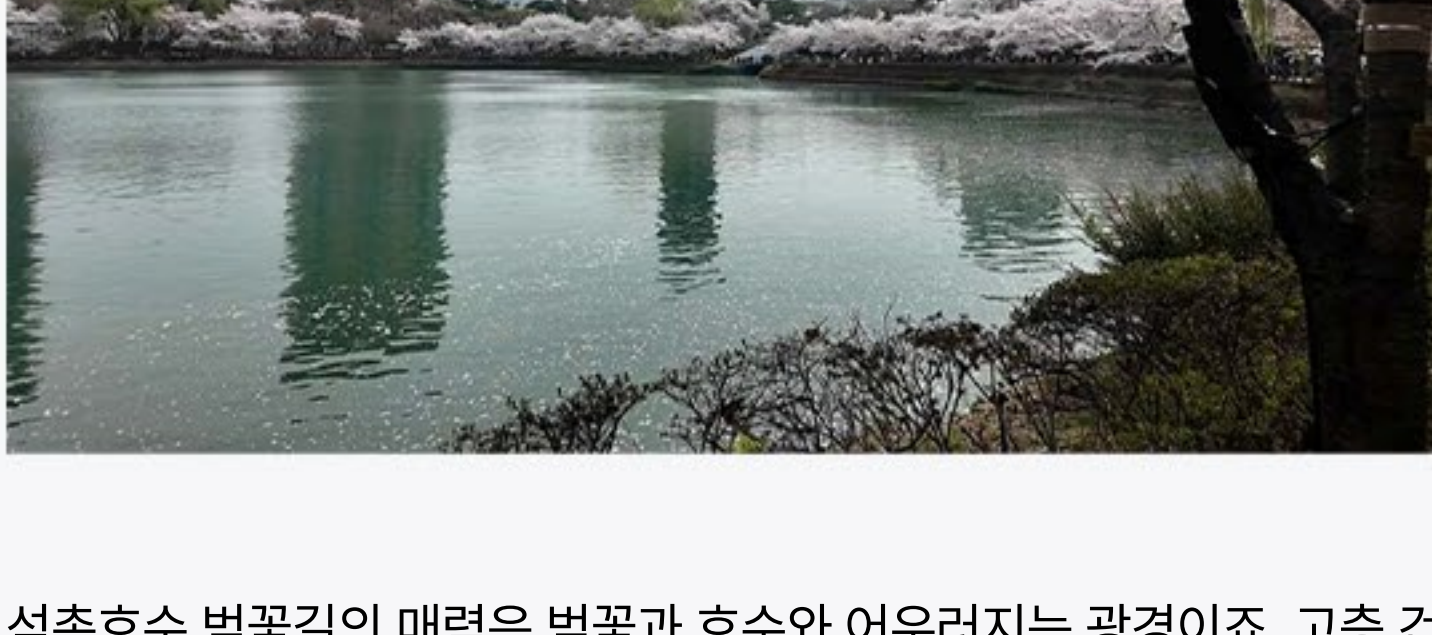
석촌호수 벚꽃길

• 서울 송파구 잠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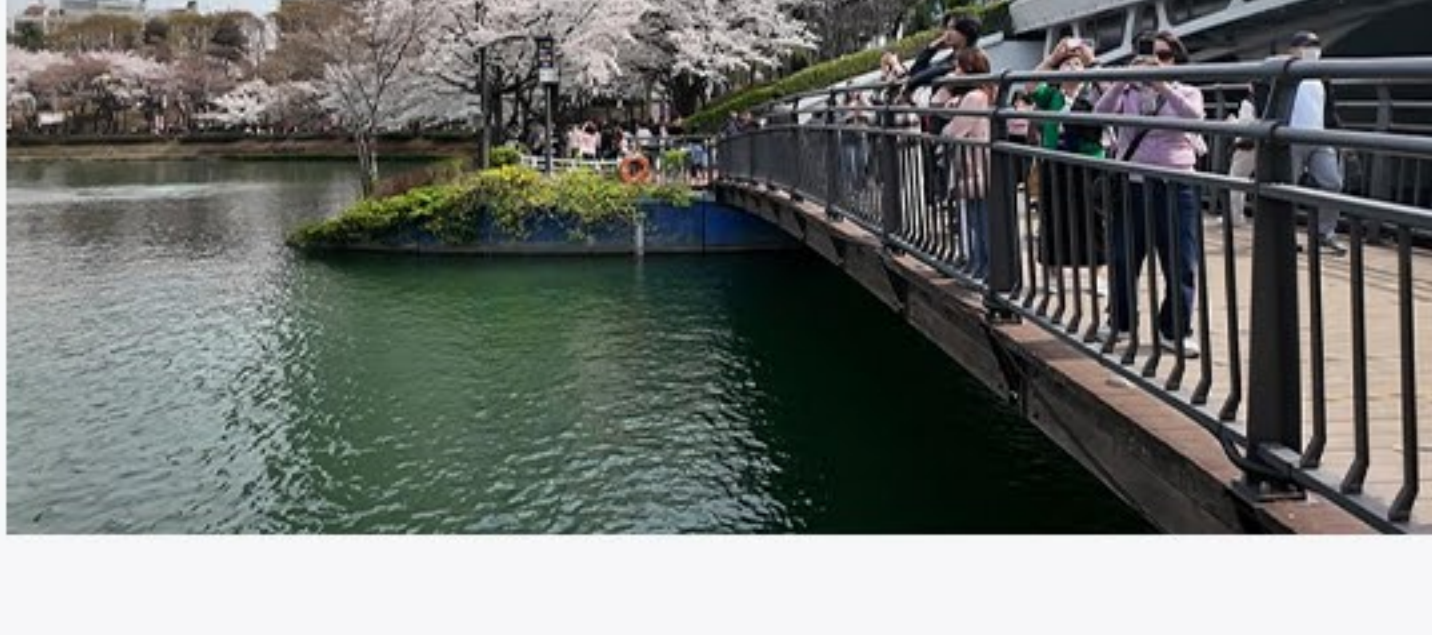
잠실역 3번 출구에서 400m 정도 걸어가면 석촌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봄마다 벚꽃축제가 열리며 축제기간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벚꽃 명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석촌호수 호수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 터널 속에 있으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날날리는 꽃들 속에서 안전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석촌호수 벚꽃길의 매력은 벚꽃과 호수와 어우러지는 풍경이죠. 고층 건물들 사이에 드넓게 펼쳐진 잔잔한 호수와 호수 주위를 가득 채운 1000여 그루의 벚꽃나무는 매년 봄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호수가 주는 시원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리를 따라 송파대로 위로 올라가면 벚꽃으로 둘러싸인 석촌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단연컨대 호수와 벚꽃은 봄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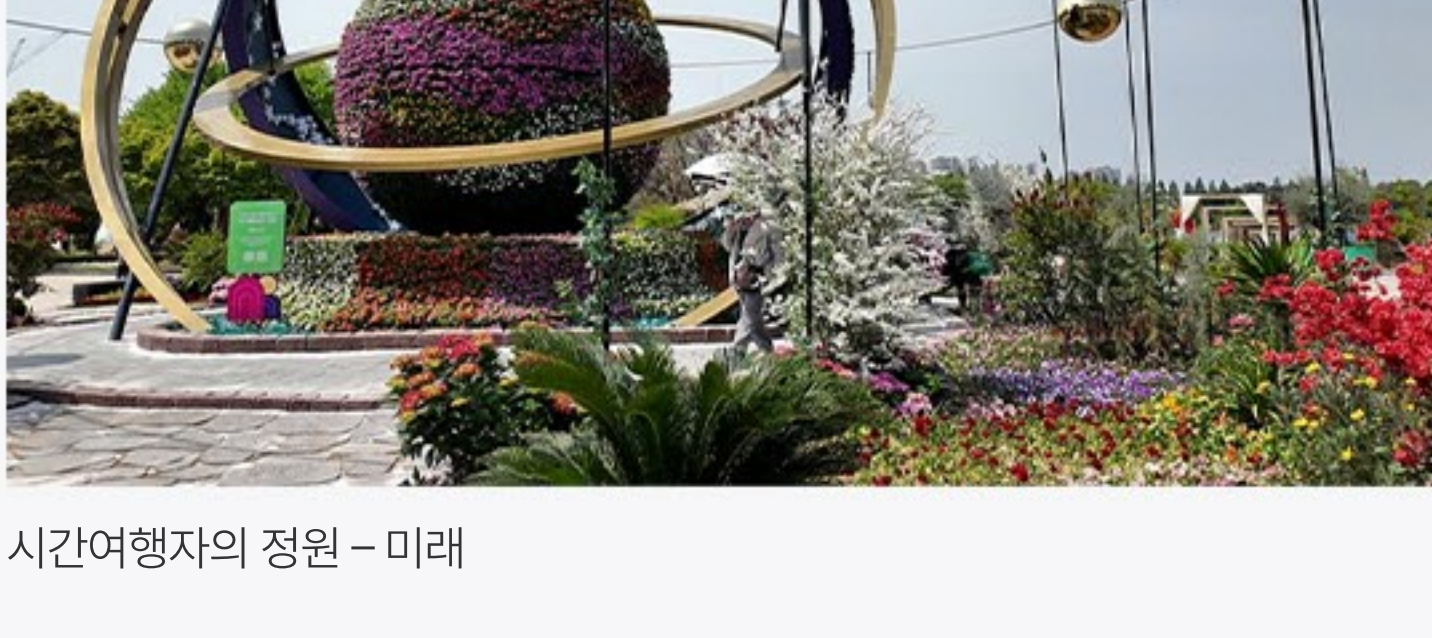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호수가 주는 시원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리를 따라 송파대로 위로 올라가면 벚꽃으로 둘러싸인 석촌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단연컨대 호수와 벚꽃은 봄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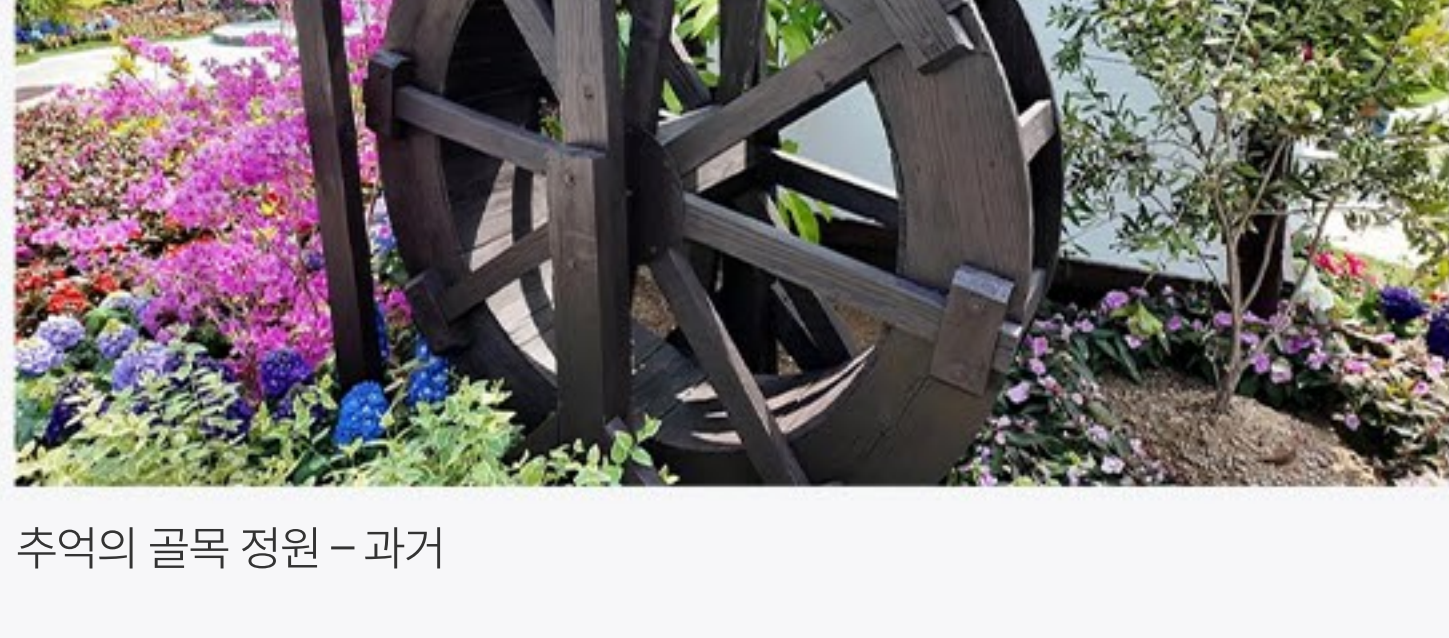
고양국제꽃박람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지난 4월부터 5월 초,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전시된 형형색색의 꽃들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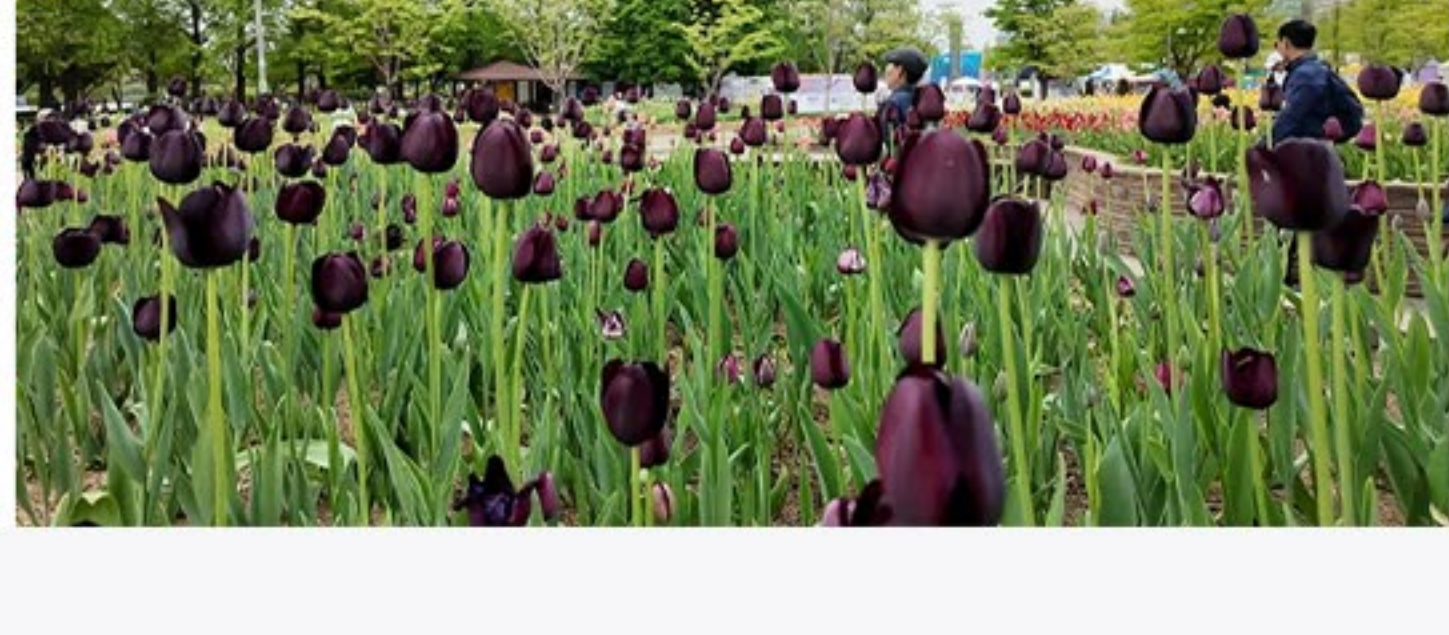


시간여행자의 정원 -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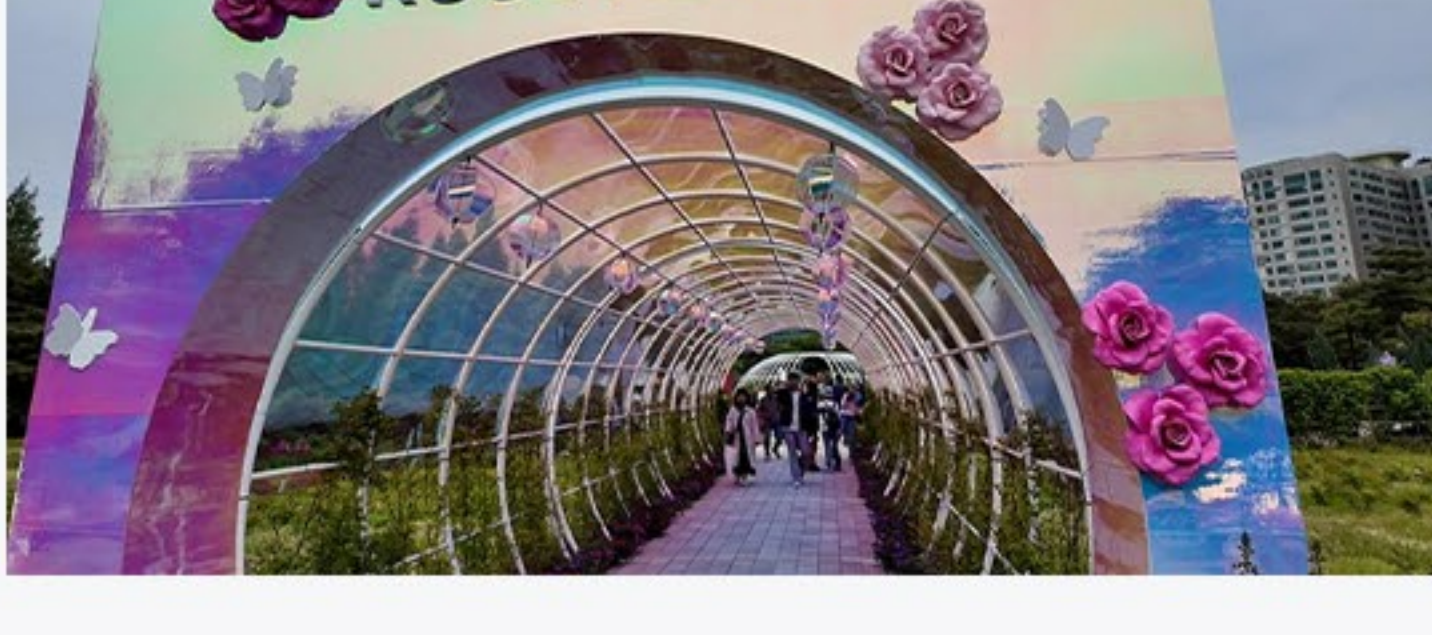


추억의 골목 정원 - 과거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꽃을 매개로 과거-현재-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 자리 잡은 꽃과 주제에 따라 꾸며진 정원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듯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튤립정원에서는 다채로운 색상과 모양의 튤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부터 노란색, 보라색, 흰색, 검정색의 튤립까지! 드넓게 펼쳐진 정원은 오직 튤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중 하나가 바로 장미 아닐까요? 신비로운 장미 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장미정원에서는 매력적인 장미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개화하는 장미는 봄의 끝을 향할수록 더욱 더 활짝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슈 & 이슈

한산의 주요 행사와 소식을 모아 전합니다



2026 본사 춘계 체육행사



산행전 단체사진



산행 중인 임직원들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했던 ‘2026년 본사 춘계 체육행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본사 임직원들은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남산 둘레길에 모였습니다. 국립극장에 집결해 사장님의 파이팅 넘치는 인사말씀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산행은 완만한 둘레길 코스로 진행되어,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며 동료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행 후에는 서울역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푸짐한 요리와 식사를 즐기며 기분 좋게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모두가 단체복을 맞춰 입고 한마음으로 소통했던 이번 행사는 화창한 날씨 아래 건강하고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원 취임식



황대현 경영지원본부장



이상호 상임감사



전시식 신성장사업본부장

한전산업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리더십 진용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황대현 경영지원본부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3월 30일 이상호 상임감사와 전시식 신성장사업본부장이 나란히 취임했습니다. 탄탄한 경영 지원, 투명한 윤리 경영,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도약을 이끄는 신입 임원진의 힘찬 첫걸음에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전국사업처장 회의



전국사업처장회의 단체사진



열기 가득한 회의 현장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술연구원 교육장에서 본사 임직원과 전국 사업처장 36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도 전국사업처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의 경영 성과를 함께 나누고, 2026년도 핵심 경영 목표를 새롭게 다졌는데요.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비해 주요 현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각 사업장의 생생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전사적인 소통과 결속을 단단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회 한전산업개발 친선 축구 교류전



축구대회 단체사진



시합 전 모습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보조구장이 모처럼 직원들의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2회 한전산업개발 친선 축구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거든요. 동남(차너스), 동북(K.F.C), 태안(한산FC), 남해(두발로) 등 4개 노조 지부가 합심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진감 넘치는 리그전으로 펼쳐졌습니다. 한전산업개발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어 화합의 의미를 한층 더했는데요. 본부조합과 각 사업처 등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직원들은 마음껏 뛰고 땀 흘리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답니다.

2025년 공채 신입사원 연수교육



25사번 신입 단체사진



연수 교육 모습

한전산업개발의 미래를 밝힐 새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2025년 공채 신입사원 연수교육’이 진행되었거든요. 이번 교육에는 총 27명의 신입사원들이 참석해 대강의실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회사 생활에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동기들과 끈끈한 팀워크를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27명 신입사원들의 힘찬 첫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멋지게 활약할 모습에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현장

렌즈에 담은 우리의 땀방울,
상생의 빛으로 피어나다



검은 산 위에 씌우는 투명한 보호막

작품설명

거대한 옥내저탄장에 굽이치듯 쌓인 석탄 위로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경화제 살포 작업이 한창입니다. 석탄이 흩날리지 않도록 표면을 단단히 굳히는 이 작업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소 내의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거친 에너지원 앞에서도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의 든든한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거친 먼지를 씻어내는 부드러운 힘

작품설명

거대한 옥내 저탄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노동자들이 시원하게 물을 뿌립니다. 이 역동적인 물줄기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석탄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현장의 공기를 맑게 하는 생명의 빛과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물청소에 집중하는 노동자의 모습에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쾌적한 발전소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공일터의 섬세한 책임감을 담았습니다.



안전을 거는 순간

작품설명

대형 설비를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는 순간의 방심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작품은 작업자들이 중량물 취급 전 장비의 연결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의식을 표현하였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서로의 작업을 살피는 모습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업의 가치를 보여준다. 눈에 보이는 작업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태도야말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확인, 또 확인

작품설명

발전설비의 안전은 작은 이상 신호를 발견하는 세심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대한 모터 앞에서, 노동자가 테스터기를 들고 설비의 상태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을 밝히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의 가장 깊숙한 혈관까지 짚어내는 노동자의 예리한 시선과 따뜻한 손길을 거쳐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멈추지 않는 동력을 위해 거대한 심장의 박동을 확인하는 숨죽인 찰나를 담아냈다.



서로를 지키는 약속, “안전 좋아!”

작품설명

거대한 철골과 차가운 금속 설비로 둘러싸인 발전소 현장이지만,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온기입니다. 본 작품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전을 확인하는 순간을 담아,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의 의미를 표현했다.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소통 속에는 무사고 작업을 향한 신뢰와 협력이 담겨 있으며,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현장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임을 보여준다. 딱딱한 규정보다 강한 끈끈한 동료애와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공공일터의 아침을 담았다.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살피는 장인의 눈빛

작품설명

국가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 설비의 하우징 공차를 점검하는 현장입니다. 작업복 팔뚝에 새겨진 ‘안전제일’ 마크처럼, 이들의 최우선 가치는 설비의 무결점 작동과 국민의 안전입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하우징의 내경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공공일터 노동자. 국가 산업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에너지 인프라의 든든한 뼈대를 완성해 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숨은 위험까지 살피다

작품설명

빛이 잘 닿지 않는 거대 터빈 내부, 노동자의 작은 손전등 하나가 베어링의 깊숙한 곳을 향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설비의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의 시선은, 혹시 모를 작은 결함조차 사전에 찾아내어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공공 노동자의 책임감 있는 눈빛을 담았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6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더없이 기쁘겠지만, 렌즈를 통해 다시 마주한 현장 근로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밝혀주시는 모든 현장 직원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곁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의견모음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고, 더 보고 싶은 한전산업개발 웹진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향후 웹진 운영에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출하기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인식하면 설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한산 Quiz

한산 Quiz

한산 QUIZ 이벤트!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한 : '26.6.12(금) 15시까지

* Hint : 힌트는 사보안에 있습니다.



Quiz

01. 2026년도 전국사업처장 회의가 열린 장소는 어디일까요?

- ☐ ① 본사 대회의실
- ☐ ② 기술연구원 교육장
- ☐ ③ 본사 대외협력실
- ☐ ④ 인재개발원 세미나실

02.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미리 촬영해 두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남기는 사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 ① 가족사진
- ☐ ② 프로필사진
- ☐ ③ 장수사진
- ☐ ④ 기념사진

03. 남한 내륙 최고봉인 천왕봉의 높이는 몇 m일까요?

- ☐ ① 1,815m
- ☐ ② 1,915m
- ☐ ③ 2,015m
- ☐ ④ 2,115m



답변 제출하기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인식하면 설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